

이재민
배은영

자리
이민

남궁청완

박은정

석류

이동욱

이영선

장수정

조미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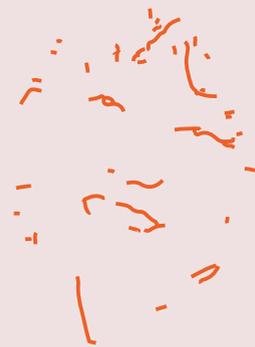
조영진

최애지

마르틴
가

이민
자리
가

활동의
자리를
만드는
사람들



사람들

	007	남궁청완
	023	박은정
	039	석류
	055	이동옥
	071	이영선
활동의 자리를 함께 만들고 싶은 사람들에게	085	장수정
	103	조미순
	119	조영진
	133	최애지

백세 시대니까
팔십살까지만
더 해보려고 합니다

매주 목요일 남궁청완 이사장의 페이스북에 새 글이 올라온다. 이번주 어르신들에게 배달한 반찬의 목록, 벌써 수백회가 넘은 반찬 배달 봉사는 지역 주민들의 자원봉사로 이뤄지지만, 재료를 사고 반찬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은 사회적협동조합헤민서가 부담한다. 어떤 일을 꾸준히, 그것도 매주 쉬지 않고 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가 꾸준히 해온 일은 한 가지가 아니다.





약령시에서 헤민서까지

75년도에 제대하고 그 뒤로 쪽 여기 있었어요. 옛날에 우리 살 적에는 배우지 못한 게 흠은 아니었잖아요. 중학교 시험을 봤는데 3등을 했어요. 그래도 무슨 공부냐, 집에 돈이 없다고 단칼에 잘리고 장학금은 1등만 받을 수 있어서 학교를 못 갔죠. 어렸을 때부터 이런 저런 일을 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다가 신학 공부를 시작했는데 군대 갔다오니까 한약 상가에 자리를 잡은 형님이 힘들고 어려운 그 길로 가지 말고 자기를 좀 도와달라 하더라고요. 형님 뜻에 따라서 이 건물(현재 헤민서 사무실이 있는 건물) 짓는 일을 도와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한약업에 종사했으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해왔네요. 그러다가 1995년도에 서울 약령시가 전통시장으로 지정을 받습니다. 그때 서울시장하고 미팅을 하면서 서울 약령시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 가치, 민족의학의 메카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서울 약령시 축제를 좀 준비하고 싶다고 하니 선뜻 500만원을 지원해줬어요. 4.5톤 트럭 적재함을 열고 그 적재함에서 시작한 한방문화축제가 올해로 벌써 24회입니다. 지금이야 여러 지원을 받지만 18회까지 진행될 동안은 혼자서 복치고 장구치고 축제를 계속해 왔죠.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약령시 협회장을 하고 신용협동조합 이사가 되고 그랬네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딱 것 좀 하지 말고 돈 버는 데 집중할 걸 싶어요. 90년대 말에는 약령시장에 강아지도 만 원짜리를 물고 다닐 정도로 돈이 흔했다거든요. 근데 왜 돈이 필요하지? 내가 필요해서 만든 돈한테 노예가 되고 싶지 않아. 그런 관한 객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돈을 안 벌었던 것이 지금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협동조합 공부를 하게 된 배경은 이제 전혀 몰랐었는데 경동신용협동조합 부이사장이 되면서 협동조합이 뭐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

었어요. 그때가 이제 2010년도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에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을 위한 많은 활동가들이 활동을 할 때입니다. 왜 우리나라에 협동조합이 필요한지 다른 나라의 협동조합은 어떤지 이런 것을 관심 있게 쫓아다니다가 협동조합이 미래에 대안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협동조합 기본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각 대학에서 개설한 협동조합 과정을 다 들었어요. 6개월, 1년, 그러면서 언젠가는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협동조합을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헤민서를 하게 됐습니다. 헤민서라는 이름은 잘 아시잖아요. 한방업계에 한 40년 이상을 근무했으니까 협동조합 이름으로 자연스럽게 헤민서가 떠올랐어요. 당시에 산에서 혼자 돌아가신 분을 우연히 구조하고 그 분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초고령사회의 기준이 인구 비례 20%라면 동대문구는 그걸 이미 넘었어요. 21.6%거든요. 근데 그중에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분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주민등록증이 말소가 됐거나 그래서 여관이나 여인숙에 거주하거나 고시원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동대문구는 초고령 사회가 이미 지났다고 봐야죠. 근데 그분들을 모니터링해보니 쌀은 그럭저럭 있는데 반찬이 없어서 한 번 끓인 된장찌개를 며칠씩 드시는 그런 게 안타깝더라고요. 이분들을 대상으로 반찬을 좀 정기적으로 공급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시작하게 된 거죠.

어르신들을 위한 플랫폼 복지

어르신들을 만나다보니 또 존엄한 죽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어요. 연명치료의향 관련 법이 2018년도에 생겼는데요. 저는 그 전인 17

년부터 연명치료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강좌를 열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응급실을 순회하다가 결국 응급실에서 돌아가시는 것이 안타까웠어요. 응급실과 중환자실이 환자의 인권이 가장 많이 침해되는 곳이에요. 호흡기를 쬐거나 영양 공급을 위해서 관을 삽입하면 그 이후로는 가족과 단절되고 내 의지로는 소통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건강한 사람이 평생 사용하는 의료비보다 죽기 전 한 달 동안 사용하는 의료비가 더 크고 그 한 달 동안 사용한 의료비보다 죽기 전 3일 동안에 들어가는 집중 치료 비용이 훨씬 많아요. 그것이 뒤에 남은 유가족들에게도 환자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진료가 대학병원을 중심으로도 남용되다 보니까 연명 치료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죠. 그러고나서 또 보니까 행려사자, 돌아가신 후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발견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장례를 통장님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치르고 있더라고요. 통장님들의 수고도 수고지만 그렇게 급조된 장례 지원 서비스가 사자에 대한 인권을 많이 유린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사회적 협동조합 한겨레 두레, 나눔과 나눔, 그리고 저까지 셋이서 서울시에 선도적으로 무연고 사망자나 취약계층 사망자를 위한 공영장례 시스템을 도입하라고 건의하게 됐고 그게 받아들여져서 2018년에 공영장례 조례가 만들어집니다.

헤민서는 우리가 가진 위민구제의 철학,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연세 많으신 분들의 플랫폼 복지를 하고 있어요. 반찬 봉사 하나를 하러 가보면 집안이 엉망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지역에 뜻있는 단체들과 집수리도 하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요즘은 삼삼오오 어르신들을 모시고 여행을 가서 점심 먹고 차 한잔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눕니다. 끊어진 천륜보다는 새롭게 인연을 만들어가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머리 속에 떠오르면 함께 할 사람을 모은다

처음에 헤민서를 한다 그러니까 얼마 못 갈 거야, 되겠어? 그런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래도 제가 함께 하자고 권유해서 처음에 임원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은 하다 보니까 자부심과 긍지도 생긴 거죠. 그런데 또 같이 가다 보면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할 거예요. 아주 작은 거에서부터 틈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초창기 헤민서의 멤버 중에서 핵심적인 두 분이 떠나셨어요. 그분들을 놓친 것은 가슴이 아프지만 언제까지 함께 하지 못하면 갈라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활동가들이 다들 그렇겠지만 일보다는 사람한테 할퀴고 찢렸을 때 상당히 힘들어요. 그럴 때마다 이게 뭐지? 라는 생각도 들지만 내 손을 잡고 돌아가셨던 어르신, 마지막에 나한테 해준 이야기. 그분의 장례를 모시고 유택동산에 유해를 뿌려드리고 돌아서면서 뜨거웠던 그 등에 와닿는 불길 같은 거. 가슴 설레게 했던 것을 부둥켜안고 계단을 내려오던 그런 생각을 하며 극복하곤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간이 좀 모자라죠. 시간도 모자라고 끊임없이 내가 맡은 지위에 맞는 일을 해야 하잖아요. 헤민서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온천여행을 간다. 내가 헤민서 이사장이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먼저 술선수범해서 후원하고 다른 분들의 후원을 독려하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되기는 하죠. 그렇지만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고. 늘 노래처럼 얘기합니다. 아무도 듣지 않게. 10년 동안만 산속에 살고 싶다. 자연인으로. 딱 10년만.

이사장은 언제까지 하겠다는 생각은 없고요. 헤민서를 나 혼자만 들어서 지금까지 끌고 온 것은 아닙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아요. 다만 제 다음으로 어떤 분이 이사장을 맡아서 해낼 수 있을까라는 데는 걱정이 좀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남다

른 열정과 주변의 인맥들을 동원하지 않으면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돈이 없으면 어려운 일이니까요. 물품 판매도 하지만 판매 수익금은 아주 극히 일부고 대체로 후원에 의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이사장은 그만두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지원해야죠. 100세 시대니까 80세까지는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몸이 이렇게 부실한데 그래도 백두대간 종주도 하고 우리나라에 100대 명산을 다 올랐습니다. 마라톤도 춘천마라톤 9번, 풀코스 한 43회 정도. 그리고 101km 마라톤을 했던 사람입니다. 노래하는 걸 좋아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노래 잘해요. 근데 이렇게 세월이 지나니까. 숨 차고 말도 제대로 안 나오고 우울해요. 한 번도 5시 반에 일어나는 것을 게을리 해본 적이 없었는데 최근에 와서 검사받고 운동을 조금 자제하고 있습니다. 내가 영리하지 못해요. 머릿속에서 자꾸 이렇게 떠오르면 그걸 실현하고 싶어서 동료들을 규합을 하죠.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사람들이 좋다고 하면 하는 거예요.

공영장례와 존엄케어, 아직도 하고 싶은 일이 많아요

동대문구에서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올해 안에 동대문 공영장례 지원 상담센터를 혜민서 안에 두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장사에 관한 법률이 좀 바뀌었고 그 바뀐 법률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근거가 생겼거든요. 구청의 지원이나 협조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존엄케어 의료 사회적 협동조합이 동대문구에도 필요해요. 동대문구에서 살던 어르신이 동대문구에서 방문 요양을 받고, 방문 요양을 받던 분들이 상태가 더 나빠지면 데이케어 센터를 통해서



보호를 받고 그 다음에 데이케어센터로 감당이 안 되는 분들은 요양원에 가서야 하는데. 멀리 있는 요양원으로 가면 환경이나 사람들이 너무나 새롭잖아요. 그때 어르신들이 고립감을 갖고 고독함을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함께 살던 사람들끼리 모여 살 수 있게 하고 싶어요.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를 받으실 수도 있고. 또 수익이 나면 자기부담금 때문에 요양서비스나 데이케어 센터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도 똑같은 돌봄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게 하는 것이 존엄케어의 미션입니다.

존엄케어라는 단어가 영국에서부터 왔어요. 교수님 한 분이 와서 인천 시립요양원 그 다음에 길병원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실험을 했는데 어르신들을 묶지 않고 수면제를 주지 않아도 순한 양처럼 잘 따라주는 실험에 성공을 했어요. 근데 개인 요양원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요양원은 쉽지 않다. 그런 일은 역시 NGO 단체에서 해야 된다. 지금 서울시에서 유닛케어라고 해가지고 함께 살이 개념의 공동주택을 지원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어르신들이 “아 좋다. 좋다. 나 거기 갈 거야.” 그러셔요. 그런 일들을 계속 동대문구에서 하고 싶어요.

늙어간다는 것은 신체적인 노화 현상도 있지만 생각이 늙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해요. 가능하면 책을 좀 보려고도 하고. 그리고 이 일을 하면서 느낀 것이 죽음은 소멸이야? 아니야. 죽음이 소멸이라면 너무 허전할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럼 죽음은 뭐야? 옮겨가는 거야. 죽음은 막혀 있는 벽이 아니라 그 벽 가운데에 있는 문을 열고 저쪽으로 옮겨가는 거라고요.

제가 산에서 만났던 그분을 국립의료원에서 2010년 12월에 보내드렸는데 거짓말같이 해외 여행을 가려고 보따리를 싸고 있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보호자님, 광영복 씨가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국립의료원에 가니까 이미 돌아가셨어도 바로 냉동고에 안치하는 게 아니라 보호자가 올 때까지는 흰 천으로 덮어두잖아요. 의사하고 간호사가 확인을 해야 한다고 이분이 광영복 씨 맞습니까? 하고 딱 천을 여는 순간 이분 눈가에 눈물이 세 방울 정도 나오는 거예요. 뭔가 하려고 하는. 그래서 손을 잡고 형님 더 좋은 데 가서 아프지 말고 기다려. 내가 갈게. 그때 만나자. 그렇게 한참 이야기를 하고 그분이 돌아가시는 것을 봤거든요. 저는 항상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죽음은 끝이 아니다. 그래서 잘 살기 위해서 나누기로 했다. 그리고 잘 살았다라는 스스로의 평점을 얻기 위해서 어렵지만 봉사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활동가는 팔자소관, 꿈 너머 꿈을 찾는 사람

팔자인 거 같아요.(웃음) 어렸을 적에 크지 않은 동네에 세 집이 이렇게 모여 살았어요. 그런데 옆집 누나들이 저를 동네 할아버지라고 불렀거든요. 어릴 때부터 제사 지내는 거에 관심 많고 곤충들이 죽어도 장례를 치러줘야 된다고 하니까. 재 동네 할아버지다. 그 별명이 지금 와서 생각하면 우연히 준 별명이 아니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한순간도 사업에 얽매여서 일에 얽매여서 살지 않고 다양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팔자 소관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함께 봉사하시는 분이 그렇습시다. 이사장님은 어떻게 머릿속에 노인들을 모시고 좋은 데 가고 노인들을 행복할까밖에 생각 안 하느냐고. 제가 그럴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운명론을 믿고 싶지는 않은데 정말 전국의 다양한 활동가들을 만나기도 했고 함께 일도 해보고 SNS를 통해서 소통도 해보면 참 당신도

팔자 소관이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도 못하잖아요. 그 일을. 그런데 꾸준히 해내가는 건 무언가 그 일에 끌리고 설렘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지치고 번아웃 오면 못 하잖아요. 그래서 활동가들은 타고난다 그렇게 보는 거죠. 활동가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쉽게 지치지 마라. 아니 지치더라도 떠나지 말았으면. 조금 천천히 가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방향만 잃지 않으면 되잖아요. 힘들면 쉬지. 힘들다고 도망가지 말고. 그 상태에서 쉬는 거야. 그러면서 방향을 잃지 않도록. 꿈 너머 꿈이라는 것은 그런 거죠. 내가 꿈 너머 꿈이 있어. 그러면 그 꿈을 꾸면서 한 발 한 발 내딛는 거죠. 그때 가장 중요한 건 북극성은 배반하지 않는다. 북극성은 늘 그 자리에 있거든요. 그거를 보고 가면 길은 잃을지 몰라도 방향은 잃지 않아요. 그래서 활동가들한테 마음속에 북극성을 띄우고 그 방향으로 천천히 꾸준히 가자고 하고 싶어요.

공익활동은 누군가는 해야 할 일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거죠. 누군가 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요즘 일본에 <생협이 왜 이런 일까지 해>라는 책이 있어요. 생협은 그냥 생명 살리는 일, 건전한 먹거리, 생명 있는 먹거리를 공부하면 되지. 환경운동으로 가고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데로 가고. 이렇게 가는 것은 그게 길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공익활동가들 스스로 좋아서 하고 있는 건 맞지만, 결국 그 일을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인데 나서서 하고 있는 거니까 판을 깔아주고 거기서 마음껏 춤추고 뛰어놀 수 있도록 지원해 주면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기부 문화가 아직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기부 문화가 많이 확산됐으면 좋겠다. 함께 더불어 사는 의미를 알 아주면 좋겠고 막상 나누어 보면 그 나눔 속에 행복이 있다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1년에 몇 번 모여서 김장을 한다? 봉사자가 많아요. 1년에 몇 번 모여서 어르신들을 식사 대접을 한다? 할 사람 많아요. 왜냐면 재밌잖아요. 사진도 찍고 뿌듯하고. 근데 혜민서 봉사는 매주 목요일, 정해진 시간에 꼭 봉사를 해야 하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공익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쉬운 성과물에 현혹되지 말자. 가다 보면 좋은 열매를 맺을 때가 있으니까 가보자. 누군가는 해야 될 일 아니냐.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혼자만 행복한 건,
저한테 어려운 일이에요

모두가 평등한 세상, 교육이 희망이 되는 세상.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지역,
단순한 상상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시민모임즐거운교육상상.(이하 상상) 상상의 홈페이지에 적혀있는 문구다.
매일 조금씩 그 목표를 상상이 아닌 현실로 만들어가는 곳. 작은 사람들이 자주
모여 지역에서부터 자신들이 꿈꾸는 세상을 만들어보고 싶었다는 상상의 사무
실에는 그런 매일을 살아가는 박은정 사무국장이 있다.





교육학을 전공하고 임용고시를 준비하던 은정은 동네를 어슬렁거리다가 다니던 성당의 수녀님에게 붙들려 공부방에서 어린이들을 만나게 된다. 빈민사목을 하던 신부님이 고스톱을 쳐서 딴 돈으로 시작한 공부방, 공돈이 생겼고 마침 성당에는 늘 빈 교리실이 있고 동네에는 아직 하릴없는 청년도 있었으니 뭔가를 작당하기에 딱 좋았다. 공부방의 원칙은 단순했다. 여러 지원을 받는 사람보다는 차상위 계층,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우선시 하는 것, 그리고 성당이지만 천주교 신자는 받지 않을 것, 마지막으로 초등학생부터. 그렇게 운영하다가 성당이 재건축을 하면서 동네 주민이 내준 집으로 옮겨 공부방을 계속 운영했다. 그 때 은정은 대학 4학년이었다.

2년에서 8년까지

임용고시를 준비하긴 했는데 뭔가 저랑 안 맞더라고요. 그러다 교생을 갔는데 정말 안 맞는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반은 정규 교사를, 공부 못하는 반은 기간제 교사를 담임으로 배치하는 걸 보면서 나는 학교에서 일하지는 못 하겠구나 싶었어요.

그 이후 선택한 곳은 대안학교였다. 이 곳에서 은정은 ‘교육’에 대한 고민을 새롭게 시작했다. 하지만 대안학교 역시 ‘학교’였고 이 울타리를 넘어설 방법을 알고 싶었다. 청소년들이 학교를 넘어 더 많은 좋은 경험을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다 찾은 곳이 지금의 상상이다. 지역을 기반으로 ‘교육’을 고민하는 단체. 상상에 가서 딱 2년만 지역이 뭔지를 배우기로 마음 먹었다. 그렇게 시작한 상상과의 인연이 벌써 8년째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어요. 뭔가를 하는데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거랑 저거랑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맞다는 데 왜 맞는지도 모르겠고. 2년동안 열심히 배워서 대안학교로 돌아가야지 했는데 2년 넘게 헤맨 거 같아요.

상상의 중추 사업은 ‘죽대 있는 부모되기’. 수시로 바뀌는 각종 교육 정책을 비롯해서 기후위기, 인공지능, 부모되기 등 다양한 내용을 회원들이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했던 죽대강좌는 지난 7월 119회까지 진행되었다.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면서 점점 참여자 수가 줄어 무리하지 말고 의미있게 맺음할지 다른 방식으로 지속할지 논의 중이다. 그 다음으로는 인권교육 활동과 연대 활동이 있다. 지역의 학교나 아동 청소년 기관에서 인권교육을 진행하기도 하고 인권교육활동을 함께 할 주민들을 교육하기도 한다. 또 지역의 여러 사안에 힘을 보태고 있다. 성북구에도 크고 작은 다양한 단체와 모임이 있고, 그들간의 네트워크도 존재한다. 상상이 참여하는 네트워크는 성북시민사회연석회의와 작은도서관네트워크, 성북아동청소년네트워크이다. 특히 아동청소년네트워크의 경우 상상과 사무실을 공유하는 대안학교와 복지관, 심리상담센터, 장애인 단체, 주거복지센터 등 유관 기관들이 모두 모여 아동청소년 관련 논의를 하고 긴급한 상황을 지원한다.

예전에는 야쿠르트배달하시는 분들이 집집마다 아동 방임이나 이런 걸 파악했다고 해요. 그런데 요즘엔 그분들이 집으로 방문하지 않잖아요. 처음 모였을 때, 지역의 케이블TV사업자인 딜라이브 노조랑 같이 했거든요. 진짜 아이디어 좋다고 생각한 게 집에 인터넷은 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터넷 설치기사분들이 가정방문을 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이 방임되어 있거나 학대를 받

는 것 같다고 생각되면 네트워크에 이걸 알려주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거죠.

성북구는 봉제공장이 많은 지역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산업구조도 바뀌고 주민 구성도 바뀌면서 봉제공장이 점점 사라졌고 거기서 일하던 이주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떠났다. 지역의 공부방이나 지역아동센터를 다니던 이주 노동자들의 자녀들 역시 함께 사라지면서 지역아동센터 두 곳이 문을 닫았다고 한다. 시대에 따라 아동 청소년과 관련한 의제도 바뀌어 간다. 불법주차로 인한 안전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고 작고 사소한 부분부터 큰 교육정책까지 지역에서 함께 논의하는 모든 곳에는 상상이 함께 한다.

그래도 워라벨을 잘 지키는 편이에요. 저녁 6시 이후로는 중요한 카톡방 말고는 알람을 다 꺼놔요. 그런데 또 퇴근 이후에 연락하는 분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온오프가 잘 되는 편이었는데 8년차쯤 되니까 퇴근 이후에도 일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좀 그랬어요. 그때 이렇게 해야 했나, 저렇게 했어야 하나. 이런 생각을 계속하는 걸 깨닫고 안되겠다 싶어 친구따라 충동적으로 여행갔다 왔어요.

한 번쯤 점검해야 하는 시기인가, 방향에 대한 고민이 불쑥 찾아오기도 하지만 대안학교에서부터 지금의 상상까지, 은정은 혼자였던 적이 없었다고 한다. 1인 사무국으로 일하지만 사무실에 끊임없이 찾아와 자신을 응원하고 함께 고민해주는 사람들이 있다. 처음부터 혼자 일하게 두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었다고 한다.

나를 봐주는 사람들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을 보게 돼요

대안학교에서 일할 때도 그랬어요. 힘들다고 하면 쉬라고 하고,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보라고 하고. 그래서 진짜 애들이랑 산티아고도 다녀왔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저한테 쌓여있는 거죠. 나한테 그런 기회를 줬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저도 다른 사람을 계속 보게 되는 거 같아요. 지금도 같이 활동하는 분들이 맨날 찾아와서 우리 사무국장 고생하는데 뭘 도와줄까. 밥이라도 사줄까. 그런 애정으로 저를 지지해주고 있다는 걸 아는데 저도 저만 볼 수 없는 거죠. 상상이 사무실 이전한다고 했을 때 회원탈퇴했던 분이 에어컨을 설치하라고 돈을 보내주셨어요. 누군가 이렇게 나를 계속 보고 지지하고 지켜보고 있는데 혼자 행복하긴 어려운 거 같아요.

상상의 회원들뿐 아니라 성북구 내에서도 상상을 지지하고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다. 15년차 단체로서의 역할도 있다. 사람들이 상상을 알아보고 필요할 때 함께 해주기를 요청한다. 무엇보다 지역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이 금방 모이고 무언가를 결정하는 것도 빠르다. 빠르게 결정하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또 방향을 수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물론 '지역'이 갖는 특수한 어려움도 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때로는 갈등을 겪어도 좁은 지역에서 다시 봐야 하는 사람들이니 웃으며 만난다. 때로는 내 의도와 상관없이 이야기가 쉽게 퍼지기도 한다.

저 정말 성격이 좋아진 거 같아요. 저희 엄마가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어디 나가서 성질 부리지 말라고 맨날 그러시는데(웃음). 제가 절대 안볼 거 같은 사람한테 웃으면서 인사하고 있더라고요. 어찌됐어요. 지금은 나랑 생각이 다르지만 또 봐야 하는데. 또 같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한 5년 전만 해도 꿈도 못 꿀 일인데, 스스로 생

각해요. 박은정 성격 진짜 좋아졌다.

20대에서 30대로 넘어갈 때 몸이 아팠던 적이 있었다. 정확한 병명도 모른채 아팠던 시기, 자신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게 맞나. 나는 이 세상이랑 안맞는 사람인가를 고민했다. 자신의 행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의 행복이 '나만의' 행복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시기이기도 하다. 함께 하는 사람들과 공부하고 수다떨고 치열하게 교육하고 활동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변화를 지켜보는 경험을 통해 그제서야 나도 여기서 발붙이고 살아있다는 걸 느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쉽게 남에게 자신의 것을 내놓지 않는 사람들을 보다가 이 곳에 와서 이상한 사람들을 만났다. 뭔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자기 걸 불쑥 내놓는 사람들. 아무런 꿈꿈이나 바라는 것도 없이 나누는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사는 법도 있다는 걸 배웠다.

위인전에 나오고 싶어요

은정의 꿈은 위인전에 나오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어릴 적 읽었던 위인전 속 인물들은 모두 그럴싸한 업적이 있는 사람들이다. 심지어 알에서 태어났거나 나라를 구했다. 하지만 은정은 자신처럼 평범하게 살다가 위인이 되는 사람도, 그런 이야기도 위인전에 실릴 수 있으면 좋겠다.

제가 스스로 제 삶을 뒤돌아봤을 때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박은정이라는 애가 되게 잘 살았어라는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게 제 인생의 목표예요.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살아온 걸 중간평가해보면 되게 게으르지만 잘 살았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더 해보고 싶은 일은 처음의 고민처럼 청소년을 만나는 것. 학교나 기관에 가서 교육하며 만나는 관계를 넘어서 보고 싶다. 특히 현재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 혹은 대학을 가지 않는 청소년들이 편히 지낼 수 있는 공간을 운영하는 것이 꿈이다. 2016년 성북 지역의 청소년 실태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다. 실태조사 결과 청소년들이 노동권 침해를 받는 사례가 많았다.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또래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출발해 또래노동상담가를 만들었다. 특성화고 청소년으로 이뤄진 또래노동상담가는 8기까지 운영되다가 코로나 시기 중단됐다. 코로나로 인해 특성화고를 졸업한 청소년들의 취업이 막혔고 미래가 불투명한 불안한 상황에서 남성 청소년들은 군대를, 여성 청소년들은 대학 진학을 준비하며 뿔뿔이 흩어졌다. 그런 상황에 충분히 대처하지 못한 것이 큰 아쉬움으로 남았고 그러면서 청소년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들을 좀 더 잘 준비해보고 싶어졌다. 특히 사회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설명해야 하는 탈학교 혹은 비진학 청년/청소년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 하나를 마련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끝나갈 수 있도록, 나이많은 동료 시민으로 그 곁에서 지지하고 지원해주고 싶다.

상상에서 인권교육을 함께 하는 사람은 총 9명. 그들의 회의 시간은 수다가 절반을 넘는다. 처음엔 왜 이러나 싶었던 은정도 지금은 활동이 단지 일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나누는 것이라는 점을 안다. 교육보다 긴 회의, 회의보다 긴 수다, 교육해서 받는 돈보다 많이 나가는 밥값.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궁금하다. 왜들 이려고 사는지.

재밌대요. 한 분은 인권교육 하기 전에 알던 사람들이랑 다 관계가

끊겨서 여기밖에 올데가 없다고 웃으면서 맨날 오세요. 예전엔 웃자고 했던 농담들, 혐오표현들을 더는 들어줄 수 없게 된 거죠. 부족할 수는 있어도 계속 변하려고 노력하는 게 저희의 특징인 거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평가할 수 있는 건 자기 자신뿐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얼마나 변하려고 노력하느냐, 스스로를 어떻게 돌아보고 있느냐. 무엇보다 혼자서가 아니라 같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으며 함께 변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 같아요.

요즘 들어 유난히 그동안 해왔던 일에 대한 얘기를 할 기회가 많다고 한다.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오래전 잊고 있던 기억들이 떠올랐고 공부방에서 대안학교, 대안학교에서 다시 상상으로 오기까지의 과정이 모두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았다.

예전에 공부방에서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이 지금 다 활동가가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생태, 어떤 사람은 여성,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운명이었더라고요. 저는 지금 이 길로 온 게 내가 어떤 식으로든 선택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네. 운명이었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활동가가 운명을 믿다니. 하지만 정작 이 말을 하는 은정은 운명이니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운명이라 계속 할 수 밖에 없어 행복해 보였다. 무엇보다 절대 혼자 두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함께 있으니 언젠가 위인전에 실릴 때까지 가볼 수 밖에.



용기를 내서 관계를 만들면,
관계가 용기를 주더라고요

'마포활짝' 뭐가 활짝 핀 걸까 궁금했다. 활짝은 '활동하는 짝꿍'이라는 뜻으로 장애인활동가와 장애인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사가 짝꿍을 이룬다는 의미다. 마포 다정한재단의 기금으로 진행된 마포활짝의 '찾기 전에 찾아가는 다정한 소식'은 최근 바뀐 장애인 활동법의 내용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가 알리는 활동이다. 마포활짝을 시작하고 활동을 제안한 석류를 만났다. (석류가 지원하는 장애인 당사자는 글에서 A라고 표기합니다)





석류가 작업치료학을 공부하게 된 계기는 단순했다. 고령화사회에 진입하니 돌봄 영역에 유망한 직종일 것 같다는 엄마의 권유. 그렇게 시작했지만, 공부하면서 장애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 장애는 단순히 개인의 신체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이고 환경적인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작업치료를 통해 신체를 나아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게 좋았다. 하지만 막상 병원에 취업해 일해보니 여전히 의료적 관점에서만 장애를 바라보고 치료하려는 것이 잘 맞지 않았다. 그러던 중, 지인으로부터 A가 활동지원사를 구한다는 얘기를 듣고 평소 관심있던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을 받은 후, 바로 일을 시작했다.

친구들에게 나는 A의 오른팔이다라는 말을 한 적 있어요.(웃음) 사실 비장애인들도 상호 의존하면서 살아가잖아요. A가 과일을 깎을 수는 없지만 제가 깎아서 주면 되는 것처럼 저도 이렇게 맛있는 커피를 스스로 만들 수 없거든요. 누구나 거래를 통해서 혹은 무상으로 다른 이의 지원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고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장애로 인해 할 수 없는 일을 스스로 해낼 수 있게 하는 사회 제도인 거죠. 그래서 자립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서비스라고 생각해요. 독립은 아니지만 자립. 자립은 필요한 도움을 잘 받고 서로 잘 의존하고 그러면서 달성 가능한 거라고 생각해요.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역할은 잘 의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줌으로써 누군가의 자립을 돕는 그런 일입니다.

장애인 노동을 중심으로 '마포활짝'

성미산 마을에 온 것도 그저 우연이었다. 일하던 곳에 성미산 마을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곳이 있다고 알고만 있다가 이사해야 하는 시기에 옮겨왔다. 처음 마포에 왔을 때는 청년활동모임인 마포청년들 ㅁㅁ에서 이런 저런 활동을 하며 조금씩 마을을 접하던 참이었다. 다정한재단이 설립되고 2023년 다정한 기금으로 마을에서 해보고 싶은 일을 지원해준다는 소식을 듣고 <다정한 소식>활동을 지원, 100만원의 기금을 받았다.

뭔가 저도 주체가 되어서 활동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찰나에 다정한 소식을 생각하게 됐어요. 사실 장애인의 노동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장애인을 노동할 수 없는 존재로 바라보고 노동을 하더라도 최저임금에서 제외하고 대부분의 장애인은 취업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활동을 통해서 장애인 당사자에게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2023년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이 일부 개정됐다.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은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신 활동지원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었는데, 당사자들의 요구로 두 가지 서비스를 모두 받을 수 있게 바뀐 것이다. 장기요양서비스는 말 그대로 '요양'을 중심으로 하고 활동 지원은 외부 활동까지를 지원하는 폭넓은 서비스다. 따라서 한 사람이 두 가지 모두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중복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해석이 수용됐다. 그러나 이렇게 바뀐 정책을 대부분의 당사자들은 잘 모른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마포활짝은 장애인활동가와 활동지원사가 함께 이 소식을 필요한 곳에 알리기로 했다. 지금까지 방문한 곳은 병원이나 재가요양센터 등 총 8곳이다.

장애인활동가 A씨가 정책을 설명하거나 하진 않죠. A는 어디든 가면 일단 서랍을 뒤지면서 커피 믹스가 있는지를 찾고 과자 있으면 뜯어서 얘기도 안 하고 먹고 그러다가 갑자기 그림 그리고 싶다고 하면 종이랑 색연필 받아서 그림 그리고. 보통 그러거든요. 그럼 저는 그 옆에서 자연스럽게 활동 지원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데 저는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라는 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리고 발달장애가 어떤 건지도 잘 몰라요. 모르니까 두려워하거나 싫어하거나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죠. 아니면 불쌍해서 도와줘야 되는 사람으로 바라보거나. 장애를 드러나게 하고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직접 보여주는 거, 이건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알 수 없고 장애인활동가가 직접 보여줘야 이해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것 자체가 공익적인 가치를 지닌 일이라고 생각해요. 노동이라고 하면 우리는 뭔가를 생산해야 할 것 같지만 경찰이 치안유지를 하는 것처럼 장애인의 활동으로 장애인식이 개선된다면 사회적인 가치가 있다고 봐요. 이런 일 자리를 국가가 만들면 더 쉽고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장애인이 존재를 드러내는 것 자체가 공익적이다. 쉽게 동의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석류는 얼마 전에 겪은 다른 사례를 얘기해줬다. 석류와 A, 그리고 또 다른 장애인 B와 그의 활동지원사가 활짝 활동을 하러 가던 길이였다. B는 지하철에서 자기 또래로 보이는 남학생들에게 말을 걸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과 의사소통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던 남학생들은 계속 못본 척하고 피하다가 결국 도망치듯 달려갔다고 한다. 왜 그들은 B의 말에 답해주지 않았을까.

사실 B는 성미산 마을에서도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사

람마다 말을 걸어요. 안녕하세요! 하면 다들 안녕하세요하고 인사를 받아주거나 요즘 뭐하고 지내는지 묻기도 하거든요. 평범한 일이에요.

발달장애인에게 마을이란 얼굴 아는 사람이 있는 곳, 단골 가게가 생기는 곳이다. 내가 일하는 가게에 장애인 손님이 오고, 내가 가는 식당에 장애인 직원이 있는 곳. 완벽하게 장애를 이해해야 하지도 눈치 볼 필요도 없다. 그냥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건 지극히 당연하고 평범한 일이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늘어나서 직접 경제활동을 하고 그 돈으로 문화를 향유하고 소비하며 지역사회에 나타나야 한다. 혹은 경제력이 없는 장애인이 돈 없이도 갈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야 한다. ‘장애친화적인 마을을 만들자’는 슬로건이 실제로 가능하려면 장애인이 눈에 보여야 한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계획과 정책은 장애인을 염두에 두지 않고 만들어진다.

장애인이 드러나는 마을

마포에는 마포활짝 외에도 이런 가치를 공유하는 공간, 사부작이 있다. 사부작은 발달장애청년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며 주민들과 문화 예술 활동을 하는 공간이다. <모던 양파>라는 그림모임에서는 그림을 그리고 홀라댄스 모임 <선샤인아놀드홀라>는 함께 홀라 공연도 다닌다. 최근에는 A도 부여까지 공연하러 가게 되어 석류도 동행했다. <메마른땅위의동물왕국>은 미디어 오페라라는 새로운 장르를 만들고 관객 참여형 연극을 한다. 이런 활동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은 공연, 전시 등에 대한 비용을 받는다.

사부작이나 마포활짝의 활동을 통해 A의 삶의 모양새도 많이 달라졌다. 사부작에서 동료들을 만나고, 석류가 참여하는 마포돌봄네트워크에서 더 많은 친구들을 만나게 됐다.

돌봄 관련한 시민단체들이 모인 네트워크예요. 처음 갔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계속 참여하고 싶은데 혹시 A와 같이 와도 될지 여쭙보니 모두 흔쾌히 오라고 해주셨어요. 이제는 그 곳에서 만난 친구들과 자주 연락하고 지내요. 결혼식에 초대받기도 하고 A의 생일 잔치를 같이 해주고 싶다는 분도 있어요. 저랑은 산책가기 싫어했는데 친구들이 나오라고 하면 산책도 잘 다니고요. 그 전에는 코로나 때문에도 거의 외출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사부작을 만나서 관계가 확장되고 또 사부작에서 마을 사람들을 만나면서 더 확장되고 돌봄 네트워크 덕에 더더 확장된 거죠. 장애인이 사회에 나와서 관계를 만들어가기 시작하면 많은 게 달라지더라고요. 국가나 지자체가 해야 하는 역할이 분명 있지만, ‘관계’의 역할도 커요. 만약 사부작이나 돌봄 네트워크가 없었다면, 저도 A랑 어딘가 가고 싶다. 지역 사회에 등장하고 싶다고 생각은 했을지 모르지만 갈 데가 없었겠죠.

석류가 돌봄네트워크를 좋아하는 이유는 ‘환대’라고 한다. 누군가를 다정하게 맞아주는. 돌봄 종사자는 장애인 당사자의 집, 혹은 노인 요양이 필요한 이용자의 집으로 찾아가는 업무의 특성 때문에 외로울 때가 많다. 이용자의 가족과 상의하기는 하지만 동료가 필요한 경우가 더 많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떻게 해야 상대방에게 더 좋은 돌봄을 제공할 수 있을지 고민될 때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런 관계를 네트워크를 통해 찾았다.

소식을 공유하고 기억해주는 것이 돌봄

한 달에 한번 만나서 소식을 공유하는 게 핵심이에요. 소식을 공유하고, 그걸 기억해주는 것. 아마 다른 활동가들도 그럴 것 같은데 저는 인정받고 싶거든요. 저희 활동이 돈으로는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가치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인정이라도 받고 싶다. 누군가 내 활동을 기억해주고 소중히 여겨주면 좋겠다는 바람이 다들 있을 거예요. 돌봄의 감각이라는 애길 나눈 적이 있는데 저는 서로의 소식을 들어주고 기억해주고, 이런 게 진짜 돌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하는 일의 의미를 알아주는 사람, 나는 왜 이 활동을 하고 있지?라는 질문이 들 때마다 ‘잘하고 있어. 꼭 필요한 일이야’라고 말해주는 사람. 그저 기억하는 걸 넘어 서로의 영역에서 도울 일을 찾아 협력하는 것. 돌봄네트워크에서 진짜 돌봄을 배워가고 있는 석류는 마을에서 또 다른 모임을 해보고 싶다.

사실 지금 하는 활동이 기금을 받아서 하는 거라 내년을 기약할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마포활짝의 이름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사 모임을 만들어보고 싶어요.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사들 같은 경우에는 고민거리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고민거리들을 같은 일하는 동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싶다는 생각이 종종 들어요.

인터뷰를 하는 동안 석류는 자신이 지원하는 장애인 당사자를 이름으로 불렀다가 이용자라고 부르기도 했다. 자신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A는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이용자이기도 하지만, 두 사람은 마을

에서 함께 활동하는 동료이자 친구다. 집을 나서면 두 사람을 환대하는 친구와 지역사회가 있다. 석류는 올해 청년모임 □□□와 함께 <내 꿈은 멋진 할머니>라는 제목의 여성/성평등 축제를 열었다. 또 환경과 관련된 캠페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마을과 더 가까워지는 중이다. 좀 더 많은 시간, 다양한 장소를 A와 함께 다니고 싶지만 석류가 제공할 수 있는 시간은 하루 5시간 정도(A는 월 150시간을 지원받는다). 그 이상은 A의 가족이 따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발달장애는 지적장애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받는 시간이 적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석류가 무상으로 지원활동을 할 수는 없다. 이 지점이 딜레마다.

“저는 이 일이 좋아요. A랑 같이 마을 살이를 함께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제 일이라는 게 행복하죠. 그래서 오래 활동하고 싶긴 한데 이게 또 충분한 급여가 되지는 않다 보니까 가끔 또래친구들과 경제적인 것, 미래에 대한 얘길 나누다보면 좀 답답해져요. 부모님이 편찮아지시거나 나중에 혹시라도 결혼을 하고 싶어지면 활동지원사로 먹고 살 수 있을까. 오래 일하고 싶지만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어요.

석류는 사전에 보낸 질문지에 대한 답변을 길게 준비해왔다. 고맙기도 했고 신기하기도 해서 이유를 물었다. 작업치료학을 공부할 때도 그랬지만 활동지원사를 할 때도 사람들이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의사나 물리치료사라면 하지 않았을 질문들. 어떤 일을 하는지, 주변에서 흔히 보기 어려워 생소한 직업. 그래서 자세히 잘 설명하고 싶어 미리 적어보았다고 했다. 어쩌면 우리 사회에서 발달장애인도 그렇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매번 자신을 설명해야 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일까. 설명하지 않아도,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아도 그저 함

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석류는 오늘도 찾아가고 있다.

이 활동을 지속하게 하는 힘은 관계에서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관이든 단체든 사람을 좀 만나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도 생각해 보면 돌봄 네트워크나 사부작을 처음 찾아갈 때 엄청 용기 내야 했거든요. 용기를 내야 하는 순간은 힘들었어요. 저도 용기가 없었고 지금도 그닥 용기가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일단 용기를 내서 만나면 너무 좋다. 이 말씀은 확실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관계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 관계가 용기를 주더라고요.



마을의 변화에
1%라도
기여하고 싶어요

2019년 12월, 5개의 시범동으로부터 시작한 강북구 주민자치회. 그 중 한 곳인 미아동에는 어쩌다 주민자치회의 부회장이 되어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는 사람이 있다. 미아동 거주 경력 34년, 꽃집과 청소업이 본업이지만 이제는 주민 자치, 주민, 동네에 대한 고민으로 쉴 틈 없이 바쁜 이동욱씨를 만났다.



주민자치회 활동을 시작한 계기가 궁금합니다.

두 번의 계기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저희 아파트에 사는 통장님 한 분을 오다가다 만났는데 아마 그때가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보고 자치회에서 한번 활동 해봐라, 그냥 가볍게 얘기를 해서 자치회가 뭐지, 했던 기억이 있어요. 두 번째는 제가 꽃 가게를 운영하거든요. 그런데 어느날 손님 한 분이 주민자치회라고 적힌 조끼를 입고 오셔서 저보고 자치회에 한번 오시면 좋겠다고, 섭외가 들어왔다고 해야 하나. 아무튼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그냥 한번 해보자, 그렇게 시작했어요. 제 성격이 뭘 하면 제대로 해야 해서 그럼 이왕 하는 거 발만 걸치지 말고 깊숙이 들어가서 해보자 싶었죠. 그래서 뭣도 모르고 부회장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도 그럼 동네에서 활동을 하셨나요?

아뇨. 여기 34년이나 살았어도 주로 제 일, 아니면 가족들하고만 지냈죠. 다니던 교회에서 지역의 독거 노인이나 이주민 등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지원하는데 집 수리, 청소 이런 걸 해주더라고요. 제가 청소업을 오래 했거든요. 제가 잘 하는 일이니까 봉사활동을 좀 했어요. 그거 말고는 주민자치회가 뭔지, 지역 활동이 뭔지 전혀 몰랐습니다. 주민자치회도 있다는 건 알았지만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는 들어와서야 알았어요.

이동옥씨가 주민자치회에 참여한 시기는 2021년 아직 코로나가 한창일 때였다. 그래서 주민자치에 대한 교육도 줌으로 진행됐다. 교육 내용 중에는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면 마을에서 의미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평상시에도 막연하게 뭔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어떻게 해야할지 방법을 몰랐던 그는 그 말에 끌렸다

고 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에 끌리셨어요? 평소에 어떤 걸 하고싶으셨는지.

제가 식물을 좋아해요. 그래서 꽃집도 하고 있는 거고. 제가 사는 동네, 골목을 좀 바꿔보고 싶더라고요. 예를 들면 좀 삭막해보이는 곳이 있다면 꽃을 심어서 오가는 사람들이 기분전환을 할 수 있게 한다든가. 오토바이를 불법 주차해서 사람들이 불편을 많이 겪는데 그런 걸 해결해서 골목을 보기 좋게 한다든가. 그런 걸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였구나 싶었죠.

주민자치회는 분과로 구성되더라고요. 미아동 주민자치회를 좀 소개해주세요.

미아동은 복지분과, 문화체육 소통분과, 환경분과로 구성돼 있어요. 우선 복지분과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미아동 인구의 연령대가 높은 편이에요. 청년도 있기는 하지만 50대 이후가 압도적으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즐겁게 해줄 일을 찾아봤어요. 그분들이 보통 골목이나 놀이터에서 하루를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식물을 화분에 심어보고 반려식물 키우는 방법을 알려드리기도 하고 부채춤 공연도 보여드리고 수화를 배우면 치매 예방에 좋다고 해서 그런 것도 했어요. 혼자 따로 계시는 분들이 한데 모여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동네에 나 말고 누가 사는지도 알게 되고 서로 친해지시더라고요. 오래 살아도 우리가 의도하지 않으면 서로 교류를 안 하잖아요. 다들 즐거워하셔서 저희도 뿌듯했죠.

그리고 문화체육소통분과는 노래교실을 열었어요. 목표가 50명 정도였는데 매주 7-80명이 오셔서 3개월 동안 노래를 불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70명이 넘는데다가 나이드신 분들도 많으니까 안전 문제라든가 많은 게 신경쓰이더라고요. 그런데도 매주 꼬박꼬박 오신 분들이 수업 끝나고 돌아가는 발걸음에 흥이 나 있는 걸 보면 저희도 덩달아서 즐거웠죠. 처음엔 굉장히 수줍어하시던 분이 마지막 발표때는 굉장히 흥겹게 춤도 추고 노래도 하는 걸 보면서 하길 잘했다 생각했어요. 또 장구교실도 열어서 25명 정도가 참여했어요. 장구 실력이 많이 늘어서 다른 분과가 사업할 때 주민센터 대강당에서 식전행사로 어르신들과 즐거운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안전 골목분과는 어느 동네에나 있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했어요. 집집마다 돌면서 쓰레기 배출 안내도 하고 특정한 날을 잡아서 ‘줍깅’이라고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는 캠페인도 했어요. 그러면서 직접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특히 저희 위원들만이 아니라 어린이나 청소년들이랑 같이 했어요. 그랬더니 무단투기하던 어른들이 좀 부끄럽게 생각하기도 하고 안내 사항에 더 귀기울여 주시더라고요. 친환경 세계를 주민들과 같이 만들고 재활용 분리하는 곳, 소각장도 직접 방문해서 교육받았어요.

미아동 인구는 현재 2만 900명 정도. 매년 이 중 0.5%인 110명의 주민이 모여 직접 주민자치 총회를 통해 내년 사업을 결정한다. 3개 분과가 사용하는 예산은 2천만원. 커다란 사업을 하기에는 적은 금액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주민들이 함께 준비하고 결정한 사업들은 예산의 크기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가을에 동별로 축제가 있어요. 미아동 주민한마당 축제. 마을에 사는 사람들끼리 노래 자랑이라든지 장기자랑을 하는 건데 그날 800명 이상이 모이거든요. 사업비가 아무래도 부족하니까 주민들에게 후원금도 모금하고 공연 섭외에 기획사, 부스 설치, 만국기 설치, 전부 살면서 처음 해보는 일이었죠. 정말 쉽지 않았지만 저희끼리 과정 하나하나를 퍼즐 맞추듯이 마무리했을 때 정말 보람을 느꼈죠. 신일고등학교 앞 공터에 자리를 마련한 건데 코로나 때문에 축제가 오랫동안 없었잖아요. 주민들이 다 나와서 구경하고 어마어마했어요. 차량 통제하는 팀, 스태프 식사 준비하는 팀, 공연 준비하고 무대 세팅하는 팀. 다들 역할을 맡아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새벽 두세시까지 준비하고 정리하고 힘들긴 했죠. 그런데 축제 끝나고 뒤풀이 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박수치고, 우리 잘했다! 하는데 고생했던 게 싹 잊혀지더라고요.

즐거웠던 순간만 있었던 건 아니다. 축제가 열리는 도로를 통제하면서 미리 양해를 구했지만 동의해주지 않는 상가의 민원을 받기도 하고, 행사가 끝난 후에도 상품을 받지 못했다며 항의하는 주민도 있었다. 가끔은 주민자치회가 해결할 수 없는 민원을 제기하고 들어주지 않으면 구청에 민원을 넣기도 한다.

모두 처음 해보는 일이라 어려운 점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의제를 발굴할 때는 주민을 만나야 하잖아요. 마을의 문제를 해결한다고는 하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 나서야 될 일을 저희한테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처음에는 당혹스러웠지만 저희가 정기회의나 간담회를 할 때



구의원이나 시의원, 필요하면 국회의원과도 만나서 주민들이 제안한 걸 전달합니다. 특히 주민센터와 가장 밀접하게 일하니까 동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바로 동정 보고를 통해 동장에게 전달하기도 하고요.

사실 부담 가는 부분이 있어요. 주민자치회 위원들도 다 본업이 있지만 짬을 내서 활동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공무원처럼 상근으로 상주하면서 주민들의 제안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도 작고요. 하지만 주민들이 말하면 되도록 흘러들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곳으로 잘 전달하려고 합니다. 민원같은 경우에는 구청의 어느 부서에 연락하면 되는지를 알려드리기도 하고요. 사실 예전엔 저도 그랬지만 주민들이 동에서 일어나는 일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유익한 정보가 많은데 의외로 잘 몰라요. 그래서 정기 회의때 서로 알려주기도 하고 주민들을 만나서 홍보하기도 하죠.

그러다가도 한번씩 항의를 받거나 하면 힘들죠. 대책이라면 그냥 무작정 들어주는 것. 1시간 동안 들어준 적도 있어요. 저도 할 말은 있지만 주민과 싸울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든 잘 설명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해야 할까요. 약간의 마찰도 있지만 또 잘 들어드리면 그분들도 가라앉더라고요.

힘들어도 즐거운 순간이 더 많아서 계속 하시는 걸까요?

사실 저도 주민자치회 시작하고 나서 집에서 보내는 시간도 줄어들고 식구들에게 눈치가 보이기도 해요. 그럴 때면 내가 뭐 번지수를 잘못 찾아오지 않았나. 또 계속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내가 알지 못했던 걸 경험하면서 뭐랄까, 중독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주민들의 표정이라든지 즐거워하는 모습, 자치회 일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저분들에게 내가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 그런 게 저를 붙잡아두는 것 같아요. 주민자치회도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의견 충돌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러면 임기만 조용히 끝내고 나갈까? 하기도 하고 저도 왔다갔다 합니다. 하지만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마을의 변화에 내가 1%라도 기여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동안 한번 해보자. 그리고 여기 와서 정말 좋은 사람이 많다는 걸 알았어요. 저보다 먼저 동네에서 열심히 활동해온 분들. 여기 오지 않았다면 아마 모른채로 살아갔겠죠. 그런 면에서 제가 잃은 것보다 얻은 게 크다고 생각해요. 책임감도 있죠. 내년에 할 일을 제가 다 계획하고서는 다음에 오는 사람들에게 널널 떠맡기는 것도 무책임하잖아요. 기왕 자치회에 왔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여건이나 시간이 되는 한은 열심히 해보자. 언제 또 누가 나를 불러주겠나. 이런 생각으로 스스로를 다독이며 마음을 정리한 것 같아요.

이동옥씨의 임기는 2023년 11월로 끝났다. 2년 임기에 2년을 연임할 수 있는 규정 덕분에 12월에 연임이 시작됐다. 2024년에 같이 활동할 미아동 주민자치회 위원은 총 31명, 올해 사업은 모두 끝났지만 새로 위촉된 위원들과 얼굴도 익히고 내년 사업을 준비하느라 12월도 바쁘게 지낼 예정이다. 직접 민주주의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주민들은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대부분의 정책에 대해 잘 모른채 살아간다.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참여하기도 어렵고 정책이 변해도 한참 후에야 알게 된다. 주민자치회의 예산과 사업 규모는 작지만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만들고 과정과 결과도 함께 나눈다. 행정과 협업하고 기초 의원 등 정치인도 만나 주민의 뜻을 전달하고 협의한다.

마을의 변화에 기여했다고 느껴지시나요?

아직은 뭐 크게 변화했다고 하긴 짧은 시간이죠. 그런데도 저를 알아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책임감을 느껴요. 주민들이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불편함을 해결하거나 필요를 채워나가는 경험을 할 때마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하죠. 꼭 어떤 사업을 하고 성과를 내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주민들에게 중개자 역할,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것도 의미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경험을 하면 저처럼 더 해보고 싶어질 거란 말이죠. 아, 내가 이렇게 하니까 변화가 있구나. 당장 내 집 앞이 바뀌고 사람들 표정이 달라지는구나. 그런 걸 더 많은 분들이 경험하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지금 활동하는 위원들이 모범을 보여야겠죠. 뭔가 마을에 발자취를, 흔적을 남겨서 그 다음 사람, 그 다음 사람이 또 생겼으면 좋겠어요.

저도 요즘에는 꽃집에 찾아오는 손님 중에 눈여겨봤다가 혹시 주민자치회 활동 안 하실래요? 하고 권해요. 물론 수락하는 분은 별로 없지만 숨은 일꾼을 찾아내는 것도 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일이 한 번에, 혹은 1년만에 성과를 내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4년, 5년 길게 보고 비전을 가질 수 있어야 해요. 우리 임기 동안 다 이뤄보겠다는 건 욕심이고요. 앞으로 2년 더 하면, 제가 더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 2년 동안은 정말 잘해보고 싶어요.

꽃집에 찾아온 손님의 권유에 덜컥 들어갔던 주민자치회. 그는 어 느새 자신의 꽃집에 찾아오는 다른 손님에게 함께 하자고 권하는 사람이 됐다. 힘들지만 분명 의미 있는 일, 즐겁고 보람 있는 순간이 더 많으니 이 경험을 혼자만 하기에는 아깝다. 이동옥씨는 가끔 고민이 깊어지면 꽃을 바라본다. 꽃은 노력을 배신하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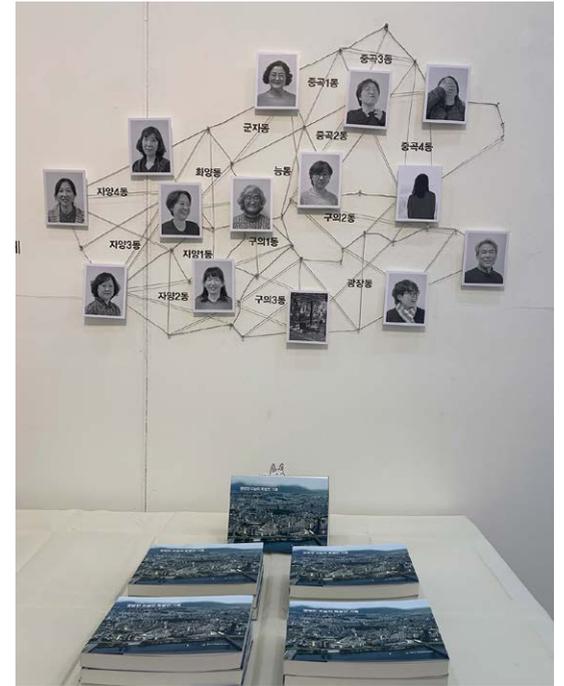
에 따라서 물을 주고 거름도 주고 식물의 성격에 따라서 햇볕 쪽에 갖다 놓고 살피주면 항상 제때에 꽃을 피운다. 마을에 흔적을 남기고 싶다, 마을에 작은 기여라도 하고 싶다, 스스로에게 한 약속을 성실하게 지켜내는 그의 활동도 분명 제 때에 꽃을 피울 것이다.



해야 하는 일
말고,
하고 싶은 일

전형적인 공대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이영선씨. 결혼 후 두 아이를 낳고 어린이 대공원 근처에 살려고 이사온 광진구에서 공동육아를 시작으로 도서관, 마을 축제, 그리고 다른 주민들을 지원하는 활동가로 13년을 보냈다.





공동육아에서 마을 활동가까지

공동체 생활을 경험해본 적은 없지만 아이를 경쟁적으로 키우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있었다. 학원 뽕뽕이를 돌리면서 키우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에 공동육아에 참여했다. 건축을 전공하고 관련한 직장에서 일하다 처음으로 발을 들여놓은 공동육아의 세계는 낯설고 재밌었다고 한다.

처음엔 너무 놀랐어요. 공동육아를 하려면 아무래도 서로 상의하고 이런 게 많잖아요. 공대생들은 A면 그 다음은 B, C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무슨 회의를 8시간씩 하는 거예요. 그렇게 회의를 했는데 심지어 결정된 것도 없어. 아니면 결정됐는데 다음 회의때 또 막 바뀌고. 놀라움의 연속이었지만 적응도 되고 그랬죠. 이렇게 긴 시간 이야기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2010년 광진구에는 2곳의 공동육아 어린이집과 1개의 방과후가 있었다. 다 합하면 100여명의 어린이들이 공동육아를 통해 자랐다. 하지만 영선씨가 사는 동네는 아차산 인근으로 유독 아이들이 갈 곳도 부족하고 각종 공공시설과도 거리가 있었다. 주민센터도 한참 가야 있었고, 어린이대공원과도 멀었다. 그래서 주말이면 아이들을 데리고 강남이나 광화문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 모여서 회의하다 보면 어느새 다같이 집짓고 살자는 계획까지 뻗어나가던 사람들은 의기투합해서 우리 동네에 갈 곳을 만들어보기로 했다. 아차산아래작은도서관 ‘놀자’의 시작이다.

우선 공동육아조합에서 각각 200만원에서 300만원씩을 출자하고 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다양한 개인들이 모은 돈이 3천만원. 보증금 2

천만원을 내고 남은 천만원으로 시설을 마련했다.

저는 원래 건축 전공이라 도서관 만들 때 적극적으로 참여했거든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건축하는 엄마들이 있더라고요. 관심 분야가 비슷하다보니까 도시의 공공공간에 대한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왔고 우리 동네에 대한 얘기, 특히 보행권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됐어요. 제가 아들이 둘인데 책모임을 이끄는 분도 딸 쌍둥이를 키우셨거든요. 아이 둘 육아차를 끌고 어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도로도 좁고 울퉁불퉁 위험하고.

어린이 대공원을 좋아하는 아이들을 위해 이사까지 왔지만 대공원으로 가는 길은 험난하기만 했다.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니 고민이 깊어졌다. 그때 마침 서울시가 ‘보행도시 서울’을 선언했고 걷기 좋은 서울을 위한 활동을 지원했다. 영선씨네도 그 사업에 참여하면서 동네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잘 살아갈 방법을 궁리했지만 도로를 바꾸는 일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그러다 2018년, 영선씨가 계속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던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주민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화가 났죠. 거봐라, 우리가 거기 바뀌야 한다고 하지 않았냐. 그때 구청도 많이 가고 정치인들도 쫓아다니고 했던 것 같아요.

학교앞 이면 도로. 경사가 있는 도로를 따라 아이들은 학교에 가야 했다. 영선씨의 요구는 단순했다. 보도를 만들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하거나 아이들이 통학하는 시간만이라도 차량 통제를 해달라, 요구는 수용되지 않았고 결국 사고가 났다. 그러나 사고 이후에도 달라지

지 않는 모습을 보며 주민들은 다른 방법을 강구했다. ‘안전한통학로 만들기 주민모임’을 꾸리고 동네 주민들이 모여 골목을 산책하며 우리 동네 골목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안전한지 등을 이야기했다. 전문가를 초빙해 보행권 관련 강좌도 열었다. 그리고 차량을 통제하고 골목 축제를 열었다. 2021년에는 그동안 공부하고 준비한 것을 바탕으로 조례 개정 운동을 시작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통학로로 아이들이 보호받는 영역을 넓히는 것과 아이들 통학 시간에 차량을 통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어요. 사실 상위법이 바뀌지 않으면 조례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조례에 한 줄 담아두면 신경쓰지 않을까 싶어요. 사고 당시에는 공동육아에 참여하는 분들이랑 도서관 방문자들, 당시에는 녹색어머니회였던, 그 활동 하시는 주민들까지 꽤 많은 분들이 서명에 참여해주셨는데 사고가 나고 3년이 지나서야 조례를 만들려고 하니 쉽지 않더라고요.

1년에 한 번 광진구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활동하고 있는지 서로 확인하는 자리로 시작한 마을 축제는 골목을 알리는 축제가 되었다. 매년 연락하고 미리 축제를 준비하는 회의를 하고, 축제가 끝나면 평가하고, 다음 축제를 준비하고 이런 식으로 순환하면서 유지된 축제 준비위원회는 코로나 기간 동안 축제는 잠시 중단되었지만 모임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도서관 ‘놀자’ 역시 벌써 3기 운영진이 만들어졌다. 영선씨는 초기 3년 정도를 활동했고 자연스럽게 그 이후 새로운 분들이 등장했다. 초기 멤버들도 이용자로서 놀자를 방문한다. 모두 자원 봉사로 이뤄지는 도서관 운영이지만, 새로운 사람들이 운영을 맡을 때마다 그 사람들만의 고유한 방식과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도 흥미롭다.

회원들이 내는 CMS 회비로 월세 및 운영비를 감당하고는 있지만 매년 조금씩 오르는 월세를 부담하는 것도, 코로나 이후로 잘 모이지 않는 주민들과의 접점을 만드는 것도 도서관의 고민이기는 하다.

동네에서 하는 일은 매년 비슷하게 진행되잖아요. 좀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할 때쯤 광진구에도 마을자치센터가 생겼고, 가서 일하게 됐어요. 거점이었던 동네를 떠나는 건 아쉽지만 그래도 훨씬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 기관이나 네트워크를 연결해볼 수 있는 건 장점이었죠. 내 활동을 확장하는 느낌 이랄까요.

다양한 주제의 잡지를 만들어서 직접 주민들이 글을 써보게도 하고, <월간 나의 노래>라는 사업으로 문화예술 자원을 만나기도 했다. 동네에서는 다 해볼 수 없었던 일들이었다. 사람 만나는 걸 즐거워하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걸 재밌어하는 건 공대생같지 않다고 말하자 영선씨는 이렇게 설명한다.

저는 스스로 마을을 만나고 좀 사람됐다고 생각해요. 그 전에는 진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애를 키우다 보니까 다른 사람 도움을 안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같이 뭔가를 만들어내고 하다보니까 ‘서사’라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각 사람이 가진 서사, 이야기. 이런 것들의 의미를 알게 됐어요. 왜 8시간씩 회의를 하는지, 이유를 깨달았죠. 개인의 이야기에 집중해주고, 그렇게 그 사람이 내는 목소리를 잘 들어주는 것에 재미를 느꼈어요.

코로나 시기여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듣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회의와 교육은 줌이나 유튜브 등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했고 오프라인 모임은 아주 적은 수가 참여하는 방식이었다. 그 중 온라인 기자단과는 아직도 모임을 지속하고 블로그에 마을 소식을 남기고 있다. 사진으로 마을을 기록하는 마을사진 기록단 ‘오늘의 기록자’는 이후 광진정보도서관으로 사업이 이관되어 지속되고 있다. 건축하는 엄마들의 모임은 책모임으로 이어졌다.

현재 영선씨는 광진구에서 이어지는 모임들에 참여하면서 다시 도시계획 관련 일을 하고 있다. 전공이었던 건축, 그리고 사람과 자원을 연결했던 마을에서의 활동이 이어지는 일이다.

공공성에 대한 고민을 쪽 했던 것 같아요. 공공성이 뭐냐, 그냥 열려 있으면 공공인 거냐? 이런 얘기들. 어떤 건축가는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면 그게 공공성이라고도 했고요. 그런데 저는 마을에서 활동할 때도 좀 걱정됐던 게 뭔가를 제안하면서도 스스로 그게 맞는 걸까?라는 확신이 부족했거든요. 참여하는 건 좋은데 그냥 참여하면 그걸로 괜찮은 걸까?

연구 사업에 참여하며 덴마크 코펜하겐에 갔다가 그곳에서 답을 발견했다. 시민참여가 활발하게 이뤄진다는 코펜하겐은 탄소중립 도시를 선언하면서 시민 참여를 유도했다. 그러나 시민들이 낸 의견이 모두 수용되는 것은 아니다. 시민들이 낸 의견을 전문가들이 검토하고 중간에서 시민과 전문가를 연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도시 공공정책을 수립하는데 당신이 낸 의견이 어디서 어떻게 반

영되었다는 걸 설명해 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하고 더 많이 의견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말이 맞는지 아닌지 걱정할 필요도 없고, 모든 시민들이 전문성을 가져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필요한 걸 얘기하면 그걸 잘 수렴해서 전문가에게 전달하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의견을 낸 시민들에게 어떤 건 왜 수렴됐고 어떤 건 왜 수렴될 수 없는지 설명해주고. 그게 진짜 공공성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용이 무엇이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 영선씨는 자신이 13년이나 이런 저런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거창하고 대단한 정의나 의무감이 아니라 자신에게 필요한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 공동육아가 필요했고, 좀 더 잘 놀기 위해 도서관을 만들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아가도록 보행권 관련 활동을 했고 골목을 알리려고 축제를 시작했다. 그 과정 모두에는 영선씨의 필요, 주민들의 필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공감과 참여가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일들을 해야한다고 생각했으면 사실 10년씩 못했을 것 같아요. 지금도 누군가 활동을 해보고 싶다고 한다면, 하고 싶은 게 뭔지 생각해보고 그거 하시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꼭 비영리의 방식이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저희는 영리 방식으로 전환을 잘 못하잖아요. 뭔가 의미있는 일은 꼭 비영리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영리와 가치를 연결하는 방식도 있는데 이상하게 그런 상상이 잘 되지 않았다. 돈 버는 일은 따로 내 직업으로 하

는 거고 마을에서 하는 활동은 또 이것대로 해야 하니까 힘들었던 건 아닐까 싶기도 하다. 사람도 모아야 하고 돈도 모아야 하는 활동. 그러면서 생각이 달라졌다. 여전히 영리 방식으로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이 잘 그려지지는 않지만 꼭 비영리로 해야 한다는 강박은 사라졌다. 활동이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방식이 영리냐 비영리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후원이나 모금의 방식도 좋지만 탄탄한 자기 기반을 갖고 시작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다음 시도를 고민하고 있다.

전처럼 막 불이 붙지는 않는 거 같아요. 도서관을 만들 때 경험했던 ‘성공’의 감각이랄까, 이게 좀 옛날 일이 된 거죠. 그때는 뭘 해도 해낼 수 있을 거 같았고 모이면 뭔가를 작당하는 게 일상이었고 그래서 맨날 우리 다같이 모여살 집을 짓자! 막 이러기도 했지만, 이제 나이도 들고 그때 아이들이 벌써 다 청년이 됐고 해봐도 안 되는 일도 경험했잖아요. 특히 코로나가 컸어요. 그 시간 동안 그런 경험, 감각을 좀 잃은 느낌이에요. 일상의 작은 필요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건 맞지만 방식은 예전과 같기 어렵겠다는 생각도 있어요. 전처럼 수다모임으로는 안 되겠구나. 그럼 뭘 해볼까?

이런 고민을 함께 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혼자서 궁리하지 않도록 누군가 같이 고민해줬으면 하는 바람.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만나 고민을 공유하면 그 다음 단계로 발전한다는 걸 활동하면서 배웠다. 이런 역할, 고민을 확장시킬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필요에 따른 전문성을 갖추게 해주는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럼에도 다시 즐거운 일을 찾아서

그럼에도 다시 ‘공간’을 열어보고 싶어 준비 중이다. 이번에는 제대로 뭔가 영리적 방식을 결합한 공간.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것, 사람들의 취향을 반영한 시도들. 잡지만 있는 도서관이나 카페를 생각하고 있다. 트렌드를 반영하는 다양한 주제의 잡지를 준비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취향에 맞는 잡지를 구독하는 대신 이 곳을 찾는다. 요리 잡지를 보는 사람들이 모여 요리 모임을 하거나 건축 잡지를 보는 사람들이 건축 관련 모임을 하는 그런 공간. 그렇게 사람들이 다시 모여 자신들의 관심사를 얘기하다보면 뭔가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호기심. 하지만 혼자 궁리해서 할 수는 없는 일이라 주변 사람들에게 살며시 제안하고 있다. 언젠가 열릴 그 공간에 어떤 잡지들이 어떤 사람들을 불러 모을지, 공대생 이영선씨의 머리 속에는 벌써 A 다음 B, C가 있을지도 모른다. 아차산 아래 어디쯤, 그 공간이 열리길 기다려본다.

이렇게 사는 게
훨씬 더 이익이고
편하다는 걸 배웠으니깐요

서대문구 주민들만 들을 수 있는 라디오가 있다. 주파수 91.3. 유튜브와 스포츠, 넷플릭스같은 OTT들이 화려하게 경쟁하는 사이에서 주민이 직접 만들고 함께 듣는 서대문공동체라디오, 서대문FM. 평일 오전 7시부터 밤 12시까지 총 40여개의 프로그램이 제작, 송출되고 있는 서대문FM 방송국에서 장수정 대표를 만났다.





자라난 동네에서 라디오 개국까지

장대표는 서대문구에서 초, 중, 고등학교를 모두 나온 소위 서대문구 토박이다. 어머니가 동네에서 슈퍼를 운영하셔서 동네에서는 ‘슈퍼 집 딸내미’로 불렸지만, 사실 커오면서 동네에 대한 특별한 애착이 있거나 활동을 한 건 아니다. 그냥 오래 살아 익숙한 동네, 집이 있는 곳. 그러다가 30대 초반에 자신이 그간 해오던 미디어 활동을 서대문구에서 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됐고 마을라디오 ‘가재울 라디오’를 시작했다.

20대에는 미디어 활동을 했어요. 평택 대추리에 학생 신분으로 갔다가 할 일이 없을까 했는데, 그 곳의 상황을 영상으로 기록해두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당시의 상황을 뉴스에서도 잘 안 다뤄주고 해서, 정말 무모하게 영상을 배워서 실제로 일주일에 5번씩, 뉴스처럼 만들었어요. 그걸 시작으로 영상 기록과 연을 맺어서 다큐멘터리 제작도 좀 하고 미디어 정책 관련한 활동도 했었고. 당시에 저처럼 활동하는 미디어 활동가들이 전국에 있어서 ‘전국 미디어 운동 네트워크’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 곳에서 활동하면서 전국의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됐죠. 그러면서 공동체 라디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당시에는 많지 않았지만 지금은 20개가 넘어요.

우연처럼 시작하게 된 영상 기록, 그리고 이를 통해 연결된 공동체 라디오. 장대표는 공동체 라디오를 이렇게 설명한다. 주민이 필요한 방송을 주민이 직접 만든다. 언뜻 들으면 주민에게 어떤 방송이 필요할까, 라는 생각이 든다. 차고 넘치는 게 방송매체인데 굳이 주민에게 따로 필요한 방송이 있을까?

전 세계적으로 커뮤니티 라디오가 있어요. 저희나 지역에서 공동

체 라디오를 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공동체 라디오라는 어떤 이념, 운동 방식 이런 걸 따라가는데 저는 처음에 주민들이 직접 이야기를 한다는 부분에 엄청 매력을 느꼈어요. 공동체 라디오가 추구하는 방향이 그거거든요. 주민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직접 한다.

때로는 라디오보다 공동체가 중요하다고 할 정도로 공동체에 필요한 일을 하면서 그걸 방송이라는 형태로 풀어내는 거, 그게 공동체 라디오 방송의 목표입니다. 저희가 처음 만들어낸 게 아니라 원래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해오던 운동이고 저희는 그걸 하고 싶어서, 우리 동네에서 하고 있는 사람인 거죠.

현재 서대문FM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수없이 많다. 하지만 이 모든 방송은 주민들이 직접 제작하고 송출한다. 매년 라디오 제작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아 교육하고 기수별로 함께 교육받은 주민들이 자신이 해보고 싶은 방송을 기획한다. 청소년에서 노인까지, 연령도, 직업도, 생각도 다양하다. 서대문FM에서 일하는 네 명의 상근 활동가들은 주민들이 방송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기획과 제작을 지원하며 컨설팅을 해서 라디오 방송 하나를 런칭하는 것까지 돕는다. 그리고 나면 주민들이 직접 엔지니어링도 하고 녹음도 스스로 한다. 활동가들은 사실 모든 방송을 다 듣지는 못 하지만 시간을 쪼개서 돌아가며 한 번씩이라도 듣고 반드시 모니터링해주는 것 정도를 자신들의 역할로 삼고 있다. 방송에 참여하는 주민들 중에는 여기서의 경험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분도 있다. 주민들이 만드는 방송이라고 해서 허투루하지 않는 이유기도 하다. 각자가 자신이 만든 프로그램에 애정을 갖고, 그런 10년이 있었기 때문에 팟캐스트였던 가재울 라디오에서 공중파 방송인 서대문FM까지 왔다.

주민들이 제작한다는 것 외에도 공동체 라디오에는 특별한 지점이 있다.

저희도 허위 방송이나 거짓말, 욕, 이런 건 안 되거든요. FM 주파수니까 방송법의 규제를 똑같이 받아요. 허위광고 안되고 종교방송도 안 되고요. 그런 기본적인 거는 똑같이 지키지만 어쨌든 저희는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고 주민들이 함께 만드는 방송국이기 때문에 공동체와 함께 가려고 하죠. 그래서 어떤 문제를 제 3자처럼 다루지는 않아요. 저희가 속한 공동체, 우리 라디오가 속한 공동체의 일이라는 것을 인지하면서 어떻게 더 좋게 만들 수 있을지 그런 고민을 하게 되죠. 예를 들면 어떤 문제 하나를 깊게 다룰 수도 있고요.

실제로 인터넷에서 서대문FM을 검색해보면 시의원이나 구의원이 현안과 관련하여 출연하기도 하고, 방송에서 어떤 문제를 언급하면서 그 문제가 해결됐다는 얘기도 찾아볼 수 있었다. 주민들과 함께 자산화를 통해 만든 서대문FM 방송사 사옥이 있는 남가좌동 일부가 최근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되기도 했는데 이를 반대하는 모임에 참여하면서 더 많은 주민들을 만나기도 하고 방송에서는 재개발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담으려고 한다. 동별로 만들어진 여러 모임에 취재하러 가기도 하지만, 갔다가 사안에 동의되면 힘을 보태기도 한다. 40개의 방송이 운영되다보니 너무 바빠서 정작 오래된 동네 친구들조차 만나지 못할 때도 있지만 동네에서 새롭게 알게된 얼굴도 많다. 요즘엔 건강을 위해서도 동네 주변을 어슬렁 걸을 때가 많다고 한다. 지나가다 어른들에게 오랜만에 뵙는다고 인사를 건네면 “너희들 맨날 돌아다니는 거 우리가 다 보고 있다”고 대답하시기도 한다고. 지역 주민들이 가게에서 밖을 내다보면 어느새 늘 걷고 있는, 익숙한 얼굴이 됐다.

싸우고 화해하고 다시 싸우고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죠. 사실 제가 여성이기도 하고 또 30대, 상대적으로 어렸고. 다 어려웠어요. 뭔가 순종적이거나 예의바르거나 건실한 청년이길 바라는 주변의 시선 같은 거. 근데 저한테는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싸우기도 하고 싸우고 다시 화해하기도 하고 그런 관계들이 있죠. 싸우고도 화해가 안 되면 떠나간 분들도 있고요. 제가 옳고 그분들은 틀렸다고 보다는 서로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해결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면 같이 하지 못할 수도 있죠. 무조건 다 같이 좋게 좋게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전화를 걸었다가 장대표가 받으면 남자 사장을 바꿔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남편과 함께 일하는 그에게 남편을 잘 챙기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동네라고 웃고 넘기기엔 어려웠다. 무엇보다 어쨌든 자신이 ‘대표’이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을 이끌어야 하고 설득해야 하는 것도 힘들었다. 어떤 건 되고, 어떤 것은 왜 안 되는지 기준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것. 다른 사람에게 떠넘길 수도 피해갈 수도 없는 일이었다. 공동체를 왜 만들어야 하는지, 서로 맘에 안드는 사람들끼리 굳이 왜 얼굴을 맞대고 뭔가를 논의하고 함께 해야 하는지를 설득해가면서 어쨌든 자신도 다양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법을 익혔는지도 모른다.

아무래도 방송국이니깐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런 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특히 자신의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나, 그런 게 늘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사회적으로 지위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도 영향력을 갖게 되는데 저희는 그걸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말 잘하고 똑똑하고

혹은 가진 게 많은 사람들만 말하게 하지 않으려고 공동체 라디오를 하는 거니까. 적절하게 다른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는데 그걸 잘 맞추는 게 어렵더라고요. 이쪽은 적절히 누르고 다른 쪽은 적절히 올리는 것.

장대표는 사실 관계에 무심한 편이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도 서로를 살뜰하게 챙기는 편이 아니라고, 그래서 오히려 길게 갈 수 있었다고 한다. 공동체인데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무심함. 하지만 한 사람이 지나치게 말을 많이 하거나 독점하려는 것에는 예민한 편이다. 그것만큼은 제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각자가 가진 이야기를 발견하기

보통 방송에서는 뭐 잘생기거나 젊거나 학력이 높거나, 이런 사람들이 주로 말하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런 질문에서 시작했어요. 말을 잘 하지 못해도 와서 방송을 할 수 있고 젊지 않아도 할 수 있고. 특히 기계를 다루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나이를 큰 장벽으로 여기고 두려워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런 건 같이 배우고 익혀서 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많이 얘기해요. 나 컴퓨터 못하는데? 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방송은 컴퓨터랑 사실 별로 상관없거든요. 전원 켜고 마이크 켜고. 그래서 지금 못하겠다고 생각해서 그렇지 다 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려요. 그리고 또 각자가 가지고 계시는 얘기들이 굉장히 좋은 데 보통은 그걸 가치 없는 얘기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런 가치를 함께 발견하고 나누고 이런 것들이 저희의 목표예요.

사실 ‘누구나’, ‘모두가’는 공동체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이다.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다. 특히 라디오 방송이라는 거창함 앞에서 주민들은 방송국의 문을 두드리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40개라는 개수가 그간의 노력을 증명한다. 그냥 우리 동네가, 내가 사는 마을이 좋아서 자랑하는 이야기부터 홍제천을 따라 걷는 이야기, 벌써 수백 회를 진행한 음악방송, 야구, 영화, 그림, 육아까지. 다시보기와 생방송을 제공하는 서대문공동체라디오 유튜브 채널은 ‘내 얘기 들어보세요’라고 외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가득하다.

이렇게 다양한 목소리를 담기까지 활동가들은 사실 쉴 새 없이 일해왔다. 방송국을 개국하면서 사옥이 필요했고 자산화를 통해 건물을 세웠다. 엄청난 성과지만 그만큼 고된 일이다. 특히 방송은 뭔가를 계속 알려야 하고 많이 듣게끔 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 일을 벌리고 키울 수 밖에 없다. 공동체 라디오 활동가들은 이게 우리의 숙명인가라며 웃어 넘기기도 한다. 건물을 세울 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공간으로 운영해보고 싶었다. 하지만 방송국 운영이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드는 걸 실제 운영하면서 깨달았고 공간 운영과 방송국 운영, 이 두 가지를 모두 잘 해내는 것이 요즘의 숙제다. 공간을 만든 건 대단한 일이지만 혼자서, 혹은 서대문FM이 만든 것이 아니라 지역이, 공동체가 함께 만든 공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공간을 잘 나눠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내 ‘대체 언제 쉬지?’가 궁금해졌다. 흔히들 말하는 활동가의 번아웃. 이런 건 어떻게 극복했을까도 궁금했다. 새벽부터 밤까지 방송국을 운영하고 간간히 지역의 네트워크에도 참여하며 크고 작은 현안에 힘을 보태고, 또 현실적으로는 활동가 4인의 임금을 벌기 위해 외주 제작도 해야 한다. 18억에 달하는 건축비를 모아

건물을 세우고 600명이 넘는 주민의 서명을 받아 공동체라디오 허가를 받았다. 가재울 라디오에서부터 서대문공동체라디오까지 쪽 대표 역할을 맡았던 개인 장수정의 씬은 어디쯤에 있었을까.

번아웃. 한 몇 번 있었던 것 같은데 혼자 일하는 건 아니니까 주변에서 도와주시거나 좀 더 쉬게 배려를 해주신다거나 그랬어요. 제가 의외로 감정 이입을 잘 하는 편이라 거리두기가 좀 필요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좀 있는데요. 사람들이 공동체라고 하면 항상 좀 같이 있어야 될 것 같고 항상 사이가 좋아야 할 것 같고 그런 환상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뭔가 늘 함께 해야 할 것 같고 소소한 것도 다 알아야 될 것 같고. 근데 저는 좀 그런 거랑은 맞지 않더라고요.

혼자 있는 시간에는 주로 책을 읽거나 함께 사는 고양이와 시간을 보낸다. 움직이는 편이 아닌데 최근에는 친구를 따라 우연히 산에 갔다가 마음이 끌려서 종종 산을 오르거나 걷는다.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해보려고도 했지만 갑자기 취재나 중계 일정이 잡힐 수도 있는 방송 일의 특성 상 꾸준히 시간을 맞춰 운동하는 것은 포기했다. 인터뷰 내내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의 일상엔 온통 서대문FM인 것만 같았다. 그런데도 그리 힘들어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매일 매일이 재밌어서

장대표는 자신들의 공동체를 ‘무심함에서 살아남은 공동체’라고 표현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방송 때문에 오가지만 일일이 정겨운 인사를

나누고 챙기지 않는다. 오면 오셨어요? 라고 인사하고 녹음하고 돌아갈 때면 안녕히 가시라는 인사 정도. 가끔은 다 일하러 나가서 아무도 없는 공간에 주민이 찾아오기도 한다. 어쨌든 그런 무심함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욱 소중하다고도 생각한다. 일부러 잘 보이려고도 하지 않고 그럴 재주도 없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담아 방송을 만든다. 새로운 사람들이 세상에 이렇게 많다는 걸 라디오를 하면서 배웠다는 그는 사람들과 부딪히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또 다른 걸 벌리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데 또 놀라고, 그런 매일이 재미있다고 했다.

어제도 얌전하게 보이는 여자분이 방송을 하고 싶다고 오셔서 뭐 하시려나 했는데 락밴드에서 베이스 기타를 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10주년 행사를 했거든요. 거창하게 해야 하는데 너무 바빠서 그냥 소소하게 공지하고 그날 오시는 분들하고 술한잔 하며 얘기나눴어요. 녹음하러 오며가며 그냥 자연스럽게 서로 섞여 앉아서 놀다가 가고 그랬는데, 그날 오신 50대 남성분이 갑자기 20대 청년분에게 자기 아들 친구인 거 같다는 거예요. 아니, 왜 처음보는 사람한테 그러시냐고 저희가 핀잔 비슷하게 줬는데 진짜 아들 친구였어요. 너무 재밌죠. 서대문구 너무 좁다. 막 이러면서 신기해했어요.

얼핏 들으면 뭐가 그리 재밌지 싶겠지만 이야기를 하는 그의 얼굴은 다시 그날을 떠올리며 웃음이 가득했다. 서로 다르다는 건 불편하고 걸끄러울 수 있지만, 때로는 달라서 너무 재미있을 수도 있구나 싶다. 만나는 사람의 수만큼 새롭고 다른 것. 그것이 그가 활동을 통해 얻는 재미다.

우리가 사실 돈 버느라고 시간을 많이 허비하잖아요. 저도 생활은 해야 하지만 있는 자원을 서로 좀 나누면 훨씬 편하고 돈버는데만 쓰는 시간을 다른 데 쓸 수 있겠더라고요. 내가 가진 걸 나누면 다른 사람이 또 다른 걸 분명히 나눠주거든요. 혼자 잘 살려고 하면 삶이 힘든 것 같아요. 근데 나누면 돈 말고 다른 게 분명히, 훨씬 더 많이 생겨요. 그런 여러 가지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장이 저는 공익활동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를 둘러싼 세상이 자꾸 돈 얘기만 하니까 우리도 어느새 그런 생각을 하는 걸 수도 있어요. 물질적인 거 말고 다른 것들, 다양한 것들을 공익활동을 통해서 느껴보시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로요. 힘든데 꼭 참고 하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이 힘들게 살고 싶지 않아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훨씬 더 이익이고 편하다는 걸 배웠으니까요.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만든 공동체. 어쩌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지만 한편으로는 뭐 어떤가 싶다. 장대표의 말처럼 각자의 지역 활동은 자기만의 색이 있을 것이다. 나와는 확연히 다른 존재를 만나더라도 너무 놀라지 않을 마음의 준비, 지역 활동에 꼭 필요한 것으로 그가 당부한 말이다. 사서 고생을 하느라 흰머리가 늘었다고 엄마에게 핀잔을 듣지만 어릴 적 라디오가 좋아서 테이프에 음악방송을 녹음하던 그는 앞으로 라디오 곁에 있을 것이다.



나의 활동을 지극히 자랑하거라
알아주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진짜 재밌다

여성환경연대가 여성들이 환경운동하는 곳인 줄만 알고 덜컥 지부를 만들어 대표가 된 사람. 번아웃이 와서 대학원에 갔더니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활동 힘든 건 기억이 안 나더라는 사람. 지역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이 힘들 때 찾아가는 남서여성환경연대 <더, 초록>의 조미순대표는 오늘도 사무실에 불을 켜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





〈더, 초록〉의 대표가 된 사연이 궁금합니다.

제가 아직도 혼나는 부분인데 여성환경연대가 여성주의 단체인 줄 몰랐어요. 처음 만나게 된 게 학교에 와서 환경 수업을 했던 말이죠. 색소 실험하고 텃밭 가꾸기 하고. 그러니까 환경단체인가보다. 여성환경연대라길래 여성들이 하나보다 했죠. 오류초등학교에 둘째가 다니고 있었는데 ‘아토피없는학교만들기’라는 활동을 하러 왔더라고요. 텃밭과 환경교육이랑 부모교육을 하는데 2010년에는 부모들이 시민단체에서 뭐 한다고 오면 잘 안 왔어요. 그러니까 좀 갑갑했겠죠. 누가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부모들 좀 모아보라고. 제가 그 직전해에 학부모회장이었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니, 이렇게 좋은 교육을 왜 안 듣는 거야. 의협심이랄까. 그런 게 발동해서 사람들을 모아갔죠.

그때는 단체가 뭐하는지도 잘 몰랐어요. 그냥 좋은 일 하는 것 같아. 일종의 걸멋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런 단체를 돕고 있는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 마음? 아무튼 그렇게 모여서 공부도 하고 비누도 만들고 초창기 환경운동에서 하던 그런 일들을 했죠. 그러다가 너무 깊게 빠진 거예요. 사실 저는 살면서 뭐가 막 불편하질 않았단 말이에요. 특히 사회적 문제에는 관심도 없었어요. 학교 다닐 때도 민주화 운동하는 친구들 보면서 왜 저러니. 그랬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걸 배우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지부를 만들어다오, 하고 제가 2011년부터 운영위원장, 대표를 맡았죠.

어쩌다보니 대표가 되었다

그럼 그 전에는 지역활동, 이런 건 안 하셨나요?

전 그냥 자영업, 제가 하고 싶은 일 했어요. 학원도 하고 카페도 하고. 그러다가 IMF를 맞아서 좀 어려워졌었죠. 인생 그래프, 이런 거 그리면 40대를 항상 아래로 획 내려서 그랬거든요. 그때 꺾었다고 생각해서.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꼭 그런 건 아닌 거 같아요. 경제적으로는 좀 그랬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단체를 만났고 나를 찾는 과정을 가졌기 때문에 올려그려도 되는 거 아닐까 싶더라고요. 인생 그래프라는 게 무엇이 기준일까라는 생각을 다시 했던 순간이 얼마 전에 있었어요.

여튼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막상 지부가 되고 대표가 되고 하니까 주어지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냥 그 주어진 일들을 쳐내기 바빴어요. 사업계획서를 쓰라는데 진짜 하얀 건 종이요, 까만 건 글씨라고 하잖아요. 네모난 박스 안에 내가 무슨 말을 써야 되는지, 뭐가 목적이고 뭐가 목표인. 알려줄 선배가 없었어요. 저희가 구로에서 지부를 시작한 거니까 무슨 선배가 있겠어요. 그냥 막 혼자서 막 구르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도움들로 뭔가를 차곡차곡 채워가는 과정이었죠.

2011년에 그렇게 시작했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같이 일했던 분하고도 좀 안 맞고 어렵고. 아 안되겠다. 접자 해서 사무실을 닫았어요. 그리고 한 1년은 어떻게 모였는데 사무실이 없으니 힘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세월호가 일어났고 활동을 하려면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강해져서 2014년에 여성환경연대 남서지부를 재개했어요. 그 때는 정말 공간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여길 만들었죠.

정말 스펙터클한 시간이었네요. 〈더, 초록〉에서 했던 활동도 소개해주세요.

젠더거버넌스 활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역의 풀뿌리 여성 활동가들이 모인 풀뿌리여성네트워크 바람(풀바람)이라는 곳에서 진행했는데 지역의 정책을 성인지적 시각으로 모니터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정책이 성인지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살피고 제안도 하고 그런 거였는데 뭘 알았겠어요? 풀바람에서 전문가가 와서 교육도 해주고 지원도 해주고 그렇게 8년을 했어요. 진짜 열심히 했던 거 같아요. 그러면서 시각도 많이 바뀌고 역량도 늘었죠. 그 활동을 하다가 만든 게 ‘여성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조례’예요.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최초였죠. 그리고 나서 구로에서 3.8 여성의 날 기념행사를 한다든가 구로의 여성정책에 대한 연구용역을 행정에 요청한다든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성의 임파워먼트를 위해 자리를 지키다

지역에서 다른 네트워크 활동도 하시나요?

구로는 네트워크가 잘 연결돼있어요. 저도 이곳 저곳에 함께 하고 있죠. 처음에는 <더, 초록>을 알리기 위해서 나갔던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자연스러워졌는데 그때는 한번 회의 갔다오면 진짜 병이 났어요. 예전에는 “안녕하세요. 남서여성환경연대 <더, 초록> 조미순입니다” 를 마음속으로 수십 번씩 되내이고 갔어요. 그러고도 말할 때는 또 떨고. 혹시라도 누가 나한테 질문을 하면 그렇게 부담스럽더라고요. 괜히 잘못 대답해서 단체 욕먹이는 건 아닐까. 대표가 와서 저탄 소리밖에 못해, 이럴까봐 많이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죠. 그 다음부터는 재미가 있었죠. 뭔가를 했을 때 바뀌는 게 보이니까. 또 사람들이 또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막 진짜 잘하는 줄 알고 막 이 역할 저 역할 맡아서 하고.

이 역할 저 역할 주는대로 맡아서 ‘반사가 없는 사람’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다시 말해 거절하지 않는 사람. 누군가는 자리 욕심이 있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조대표가 중요한 역할들을 수락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어렵지만 중요한 역할을 맡아 성실히 해낸 후에, 다시 그 자리에 여성 리더를 앉히기 위해서다. 이제는 지역의 크고 작은 모임에 여성 대표들이 많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그 모임들의 네트워크 안에서는 남성 대표의 목소리가 크다고 느낀다. 그래서 무엇보다 여성들의 역량강화, 임파워먼트를 자신의 과제로 삼고 있다.

지금은 여성주의, 생태환경 이런 활동들이 잘 맞는 것 같으신가요.

생각해보면 저는 여성주의도 생태주의도 내 안에 있었던 거 같아요. 살면서 부족함이 없다고 느꼈지만 사실 내 안의 충돌들이 있었겠죠. 생태같은 경우도 제가 12년째 진행하는 민간 축제가 있어요. 매봉산 축제라고 뒤에 작은 산이 하나 있거든요. 사업비 없이 마을사람들하고 단체, 기관 이런 곳을 모아서 진행해요. 조건은 인간이나 비인간중이나 함께 평화롭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플라스틱 없이, 제로 웨이스트를 지향하는 축제를 꾸준히 해왔어요.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다 연결돼 있는 거죠. 뒤돌아보면 제 삶에서 여성환경연대를 만나서 <더, 초록>활동을 한 것은 참 잘한 일 중에 하나라고 말할 것 같아요.

지역활동은 조대표님께 어떤 의미일까요?

묻지마 폭행이나 젠더 갈등, 우리 사회의 여러 갈등이 저는 공동체 안에서 어느 정도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하잖아요. 서로 아는 얼굴에다가는 해코지가 덜

하지 않을까.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저는 그런 면에서 지역 활동, 공동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또 내가 계속 뭔가 하지 않더라도 사회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고민해요. 예를 들어 다른 활동가들을 어떻게 지지해줄 수 있을까. 지지의 방식에 대해서도 고민하고요. 새롭게 등장하는 사람, 그리고 이미 저와 함께 있는 사람들. 어제는 성공회대 학생들이 찾아왔어요. 학교 수업에서 지역 단체를 방문해서 보고서를 쓰셨대요. 우리가 그래도 검색하면 나오는 단체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사실 그동안 구로에는 왜 이런 게 없지, 아니 왜 저런 것도 없지 그런 얘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구로는 이미 하고 있어, 이미 잘 돼 있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잘 들여다보지 않으면 정작 자신이 사는 지역을 잘 모르는 거 같아요.

또 젊은 활동가들은 지역을 답답해 하기도 해요. 느리고 답답하고 간섭도 많고 그래서 힘들어 할 때, 같이 술 한잔 하면서 얘기해 주는 상대가 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공간이나 저라는 사람이 그들에겐 안전하게 느껴지니까 여러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듣는 역할을 많이 해주고 지지해 주고 싶어요.

은퇴가 아니라 사라지는 것에 대하여

언제까지 해야겠다고 생각하세요?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합니다.

언제까지랄 게 있나요. 활동가들은 은퇴가 따로 없잖아요. 어느 날 안보인다 싶으면 사라진 거죠.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좀 슬프지만 우리가 스스로를 그렇게 소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방식

에 대해서도 이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필요할 때는 부르지만,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죠. 저도 번아웃이 왔었고 그런데도 책임감 때문에 꾸역꾸역 나왔었어요. 진짜 아파 죽겠는데 왜 사무실에 가는지 저 스스로도 왜 이러나 싶을 때가 있었죠. 하지만 이 공간은 후원 회원들이 만들어준 거잖아요. 기금을 마련해서 보증금을 만들어주고 싱크대, 간판 공사까지 다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간을 열어줘야 된다는 책임감이 저에겐 너무 컸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불을 켜자’ 제가 대표가 된 이후로 스스로에게 한 약속이에요.

2011년부터 벌써 13년차. 매년 대표를 교체하고 싶다, 특히 세대교체를 해보고 싶다는 욕망이 있었다. 하지만 <더, 초록>의 회원수는 100명 안팎. 작은 지역 단체에서 세대교체를 하기란 쉽지 않다. 새로운 활동가에게 이런 어려움을 물려줘도 될까라는 부담감도 컸다. 하지만 작년, 올해 그런 마음들을 조금씩 정리했고 다음을 준비하고 있다. 이제는 어떻게 잘 늙어갈지가 가장 큰 고민이다.

잘 늙기 위해 준비하는 게 있으실까요?

힘들 때마다 순간순간 잘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하나고 그래서 자기한테 집중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애를 쓰고. 그게 저에게는 그림이었어요. 나이를 먹었을 때 어떻게 살 것인가? 묻는다면 내 먹거리는 내 스스로 기른다. 그 다음에 그림으로 자기 돌봄을 한다.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사실 악기를 해보고 싶은데 안 되겠더라고요. 손가락이 짧아서 피아노도 기타도 안 되더라고요. 그림은 그나마 어떻게든 칠하면 되는데 나를 부정하는 이 새끼 손가락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서 포기했죠. 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도 이

런 활동을 하지 않았으면 고민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나이 먹는 대로 순응하는 삶을 살았을 텐데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할 수 있고 그 방향을 내가 제시할 수 있어서 좋아요.

놀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놀고

자신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 어렸을 때부터 그렸던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다. 바쁜 시간 속에 잠시 멈춰서기 위해 그림을 그리는 건데, 그리다보니 또 뭔가가 하고 싶어졌다. 마을에서 그림을 그리는 여성들에게 전시회를 하자고 제안해서 작년에도 하고 내년 1월에 또 할 예정이다. 전시회의 이름은 <뽀뽀전>. 전시해보면 어떨까? 작가만, 화가만 전시회를 하라는 법이 있다.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래서 이름에라도 면죄부를 줬다. 뽀뽀하게 그리고 전시하는 <뽀뽀전>. 그는 노는 게 일이었다고 일하면서 놀았다고 했다. 노는 게 사라지고 일만 남으면 너무 힘들더라고.

마을에서 활동해보고 싶은 사람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사실 그 질문 보고 고민했잖아요. 뭔가 마을에 대해 미리 알게 되면 절대 안 할 거 같거든요. 근데 아무튼 재밌어요, 좀 기다릴 줄만 알면. 활동할 때 나랑 뜻이 맞는 사람이 한 사람만 더 있으면 되게 재밌거든요. 같이 욕도 할 수도 있고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먹고 또 작당 모의해서 뭔가든 이루어지고. 근데 그런 것들이 지역에 필요하고 선한 일이라고 생각되면 동의하는 사람이 반드시 나타나더라고요. 사람들이 경험이 없거나 몰라서 못하는 거지. 알게 되면 참여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나의 활동을 지극히 자랑을 하거라. 꼭 활동할 때마다 저는 자랑하라고 그러거든요. 자랑해야지 안다. 일

단 활동을 해보시고, 활동할 때는 자랑을 많이 하시고 그러다가 힘들고 지쳐서 저한테 오시면 제가 술사주고 밥사주고 그건 할 수 있어요.

난잡한 돌봄을 꿈꾼다

연말에는 마을의 여성활동가들을 불러모아 밥을 먹을 계획이다. 너는 여성주의한다면서 만날 밥타령이냐고 타박할 것 같지만 항상 누군가를 위해 차리기만 하는 사람들에게 한번쯤 대접받는 느낌을 주고 싶다. 활동에 필요한 것은 기다림. 그리고 지지와 연대, 무급 봉사는 좀 줄고 기본소득도 지급되면 좋겠다. 단체를 후원하는 문화도 활성화되길 바란다. 그러나 무엇보다 난잡한 돌봄이 필요하다.

일방적인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돕는 아주 난잡한 돌봄, 저는 난잡한 돌봄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거든요. 서로가 서로를 여럿이서 돌볼 수 있는, 꼭 가족이 아니어도 얽히고 설킨 관계 속에서 돌보는 그런 거요. 제 아이도 한참 저 활동할 때 옆집에서 많이 도와줬거든요. 나 오늘 뭐 이런 활동하느라고 늦어 그러면 걱정하지 마. 우리 집에서 밥 먹일게. 이런 식으로 저를 돌봐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순간순간의 선택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어요

2023년, 코로나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온 듯한 첫 해. 그러나 뭔가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짐을 느꼈다. 서로가 서로를 간절히 만나고 싶었지만 만날 수 없었던 3년, 만남의 모양도 질감도 달라졌다. 많은 이들이 외로움을 호소했고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만든 외로움 공론장의 자리에 모인 시민들은 '나만 외로웠던 게 아니었다'는 걸 확인하고 안심하기도, 위로받기도 했다. 천만이 넘는 서울, 옆 사람과의 거리가 불편할 정도로 가까운 이 곳에서 우리는 왜 외로울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다. 금천형 연결사회 PM으로 활동중인 조영진씨를 만났다.



딱 어제였네요. 페이스북이 알려주더라고요. 10년 전 오늘이라면
서 부모 커뮤니티 활동했던 사진이 뜨는 거예요. 너무 새롭더라고요.

혼자 노는 아이들을 보면서 고민이 시작됐다. 마당이 아니라 사방
50센티 플라스틱판 위에서 팽이놀이를 하는 아이. 모형과일을 칼로 자
르는 시늉을 하면서 혼자 노는 아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당
시에 보육반장을 하던 동료들과 함께 여럿이 함께하는 전래놀이를 배
웠다. 아이들이 어울려서 노는 놀이를 하며 신나게 놀 수 있게 하고 싶
었고, 이왕 배우는 거 사람들을 모아보자 해서 16명이 모여 활동했다.

부모커뮤니티-보육반장-기록관-민정이네시민랩

그러다가 저같은 주민활동을 지원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일을 하
다보니 마을공동체기록관을 만들게 됐어요. 이 곳이 원래 88년에
지어진 소방서거든요. 어느날 전화통화를 하다가 우연히 봤는데 건
물에 일부가 기울어진 거예요. 깜짝 놀라서 구청에 신고를 하고 진
단을 받았는데 D등급이 나왔어요. 그때 행정안전부에서 지역에 유
휴공간을 활용하는 사업을 진행하길래 사람들이랑 의논을 했어요.
뭐가 가장 필요한지? 뭘 만들면 좋을지. 무엇보다 우리가 해온 일
들, 다양한 기록을 모아두는 기록관을 만들자. 라고 제안되었고, 그
렇게 만들게 된 기록관이 작년엔 국무총리상을 받았네요.

기록의 ‘기’자도 몰랐다는 영진씨는 서울기록원의 자문을 받아 아카
이빙을 시작했다. 주민들의 활동 기록, 각 시도의 자료집들을 모으고
디지털로 아카이브해서 즐겁고 의미있는 순간을 다음 활동하는 사람
들에게도 남겨주고 싶었다.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던 중 코로나가 찾아

왔고 영진씨에게는 번아웃이 찾아왔다. 사람들을 만나고 뭔가를 기획
하고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지만 모든 게 제한되면서 기운
이 나지 않았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도 의견이 갈렸다.

정말 아침에 학교가는 애한테 잘 다녀와 하고 하루종일 침대에 누
워있었어요. 그때는 땅이 꺼진 줄만 알았죠. 너무 무기력했어요. 어
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책모임을 하던 지인 4명과 동네에서 작은 공
간을 열었어요. 집에만 있으면 안 되겠다, 어디로든 나가자.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갈 곳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편히 있을 수 있는 공간
을 만들어야겠다 싶었죠.

사실 공간에 대한 고민은 오래됐다. 처음 부모커뮤니티 활동을 할
때, 주민센터를 빌려 모임을 하고 싶었지만 아무에게나 빌려줄 수 없
다는 말에 좌절했던 경험. 그런데 통장이었던 지인의 어머니를 통해
공간을 빌려 쓸 수 있게 되면서, 왜 모두에게 열려있지 않은 건지 궁급
했다. 누군 되고 누군 안되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누구나 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보자 싶었다. 네이버 플레이스에 공간을 등록하고 주민
3인이면 누구나 직접 비밀번호를 누르고 사용할 수 있게 완전 개방했
다. <민정이네 시민랩>의 시작이다.

번아웃을 만나고 공간을 열다

민주주의의 정원이라는 책을 읽고 이름을 지었어요. 요즘 이웃집에
놀러가는 일이 드물잖아요. 민정이네, 이웃집 거실에 놀러가는 기분으
로 누구나 편히 있으셨음 했죠. 그래서 비밀번호를 보내드리고 사용한
후에 그냥 가시면 되는 자유로운 공간이었어요. 잘 쓸꺼라는 믿는 마

음으로 운영했고, 저희는 그냥 일주일에 한번 청소하고. 사용하는 운영횟수가 많아질수록 대관비보다 저희가 내야 하는 운영비가 더 많긴 했지만 즐거웠어요. 신기하기도 했고. 사람들이 꾸준히 모이는구나. 무엇보다 누구나 오라고 하니까 오히려 이런저런 제약이 있는 공공 공간들보다 더 다양한 시민들이 오시더라고요.

2년을 운영한 민정이네는 올해 건물 리모델링으로 인해 운영을 멈췄다. 그러던 중 영진씨는 새로운 제안을 받는다. 마을에서 활동하던 청년들을 금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 있을 때 지원한 적이 있었다. 네트워크를 만들고 싶다고 찾아온 청년들에게 이런 저런 조언을 조심스럽게 건네고 마을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그들이 4년만에 연락해 온 이유는 ‘연결사회’ 프로젝트를 같이 하고 싶어서였다. 문화체육부와 지역문화진흥원이 시작한 연결사회는 외롭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다고 느끼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역 내 자원(문화·예술·심리 등)과 사회 연결망을 활용하여 다양한 관계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금천은 1인가구 비율이 높은편이며 이주민 비율도 높고 20~40대 우울증 유병율이 서울시 평균보다 높다. 문화예술 분야를 잘 모른다고 생각되어 고민했지만 자신이 사는 지역에 필요한 일이기에 함께하기로 결정했다.

제안서를 준비하느라 20일 정도를 밤낮없이 달렸어요. 그렇게 준비한 게 올해 5월부터, 사업 선정 이후 실제 사업은 8월부터 시작했는데 제가 5개월 동안 회의를 167번을 했더라고요.

금천형 연결사회, 외로움

금천형 연결사회의 핵심은 외로움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협력네트워크 구축이다. 우선 외로움을 진단할 수 있는 사회적연결성정도 검사를 진행한다. 30여개의 문항에 답변을 하면 개인별로 현재 어느 정도 외로운지를 거부감이 들지 않은 언어로 알려주고 유형별로 적합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추천한다. 처음은 21개로 기획됐던 프로그램은 참여와 과정에서 사람들의 요청으로 47개까지 늘어났다. 커피모임, 기타, 규방 공예, 연극 등 동네에 있는 문화예술 자원들은 도토리학교라는 이름으로 제공된다. 현재 척도검사에 참여한 사람은 1,053명, 도토리프로그램 누적 참여자는 664명이다. 무엇보다 큰 성과는 외부에서 지원받은 사업이지만 금천구 지역 내에서 공감을 이끌어냈다는 점이다. 구청의 6개 유관부서를 모아 구청장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복지관, 청년 단체, 보건소 등 필요한 곳은 어디든지 만나서 그야말로 ‘연결’했다. 지난 12월 1일에 열린 공론장에는 66명이 참여하여 이후의 방향을 모색했다.

진짜 외로운 사람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에서 문화예술 분야의 재능을 가진 사람을 발굴하는 것도 의미 있었어요. 이 둘을 잘 매칭시키면 지역내 관계역량이 커져서 너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런 의제로 지역이 묶여본 적이 없던 말이에요. 금천구에는 정말 필요한 일인데도. 복지관 실무자들도 해야 하는 일인 줄은 알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이어지면 좋겠어요. 올해 지역문화진흥원에서 전국에서 5곳을 선정했는데 지금은 저희가 꽤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연결사회 프로젝트의 성과는 조례 제정으로 이어졌다. 금천에서 진

행한 사회적연결성척도검사의 결과는 현장 연구형태로 문화체육부와 한국심리학회로 전달된다. 사업이 선정될 당시에는 외로운 사람을 발굴해서 ‘상담심리’ 등으로 연결하기를 권유받았지만 영진씨의 생각은 달랐다. 전문가의 영역은 전문가가 진행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과 병리적 진단이나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고립은둔 상태로 가기 전의 예방이 문화예술의 사회적기능으로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누구나 외로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외로워도 괜찮다.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영진씨가 강조하는 부분이다. 보편적 복지의 관점에서 이뤄지는 문화복지. 누구나 문화예술을 통해 더 깊은 외로움으로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 ‘금천구 문화안전망 구축을 위한 조례’이다. 현재 구의회에 발의된 상태이며 뒤이어 ‘외로움 극복과 사회적처방에 관한 조례’가 준비 중이다.

저희가 현장에서 모은 데이터를 보내고 분석 결과를 받았어요. 연결 지수가 높아졌다는 얘길 들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고립감이 높아졌다는 결과도 나온 거예요. 이 검사를 통해서 자신이 외롭다는 걸 새삼 알게된 거라고 봐요. 이번에 나온 결과를 잘 정리하고 다음에는 질문을 좀 더 정교하게 해서 의미있는 임팩트를 만들고 싶어요. 특히 프로그램 참여자나 프로그램 제공자, 심지어 공간을 빌려줬던 분들도 의미있는 일에 참여해서 좋았다는가 해보니 자기도 외로울 수 있다는 걸 알았다는 말을 하거든요. 이런 말들을 잘 정리해서 기록하려고요.

공익활동의 차별성은 문제해결과 임팩트

영진씨는 ‘임팩트’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객관화할 수 있는 효능

감. 영진씨의 경우에 활동을 하며 효능감을 느낀 순간은 자신의 변화였다. 자신처럼 경력단절된 여성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정책을 만났고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했을 때, 그들도 변화하는 걸 10년동안 지켜봤다. 그렇게 함께 활동했던 여성들이 지금은 모두 지역의 리더가 됐다. 누군가 평가하기 위해 성과를 내놓으라고 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돌아보면서 어느만큼 왔는지를 알고 또 계속 나아가기 위해서도 그런 목표감이 필요하고 기록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런 변화가 결국 다정한 이웃이 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또 선한 영향력을 우산처럼 펼치니까 그 다음 사람이 생기고. 그게 저는 가장 큰 동력이었어요. 내가 변화하고 사람들의 변화를 보는 것. 그리고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아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스스로 의미부여를 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냥 잘했다가 아니라 숫자든 임팩트든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 그래야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아니거든, 이럴 수 있더라고요.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문제해결’의 관점이다. 예를 들어 경력 단절 여성들이 책모임을 하더라도 그걸 통해 자기 회복력을 갖게 됐다면 그런 걸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익활동이 갖는 차별성은 문제 해결적 관점이 있다는 점이다. 좀 더 감수성과 민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인다면 당연히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실제로 변화된 부분, 그 의미를 다음 사람을 위해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앞으로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면 역시나 ‘공간’을 만드는 것. 민정이 네처럼 누구나 쓸 수 있는 거실같은 공간을 만들고 싶다. 서로의 집에

가는 것이 너무 사적인 일이라면 대안적인 공간, 제 3의 공간을 만들면 된다.

호스트의 경험이 생겨야 또 누구를 초대할 수 있는 문화가 남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점점 없어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면 인스타그램 사진 찍는 공간들만 남아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좀 그냥 가까운 곳에 편안한 이웃이 생기면 좋겠거든요. 음식을 해먹어도 되고 영화도 봐도 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근데 혼자서 안 되고 3명 이상 와야 하는 그런 모임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민정이네 했던 친구들 이랑 같이 돈을 모으고 있어요. 그리고 재작년에는 티 소믈리에 자격을 다 땀어요. 제가 원래 전직이 와인 소믈리에거든요. 제가 조금 아니까 배우고 돌볼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았죠.

자신을 알아차리는 시간

민정이네를 운영할 때도 한 칸에 누구나 자유롭게 마실 수 있는 차를 준비해줬다. 운영진들이 비용을 감당하기는 부담스러워서 집에서 안 마시는 차를 후원받기도 했다. 누군가는 후원하고 누군가는 마실 수 있는 차를 통해 서로를 연결했다. 번아웃을 피하기 위해 만들었던 공간에서, 함께 그 공간을 만든 친구들과 심리공부를 한 적이 있다. 오래 만났던 사이지만 일로 만나기 시작한 사이라서 그런지 정작 서로를 깊이 알지는 못했다고 한다. 그 시간 동안 자기 자신을 알아차리는 법을 배웠다. 늘 다른 사람을 향하고, 다른 사람을 연결하고 그렇게 에너지를 쓰기 마련인 활동가들이 정작 자신을 잘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됐다. 그렇게 스스로를 돌아보는 역량이 생기면서 번아웃에서 회복됐고 얼마전부터는 대학에서 상담심리학 공부하고 있다. 연결사회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상담 심리 쪽을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업을 하다보니 흥미도 생겼다. 이왕이면 연결사회PM으로서 자신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시작한 공부는 그를 새로운 곳으로 이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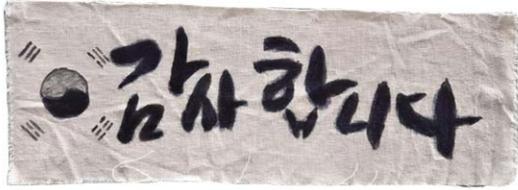
내가 뭘 좋아하는지, 어떨 때 시간가는지 모르고 몰입하는지, 그런 걸 알게 되면서 저를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제가 올해부터 제 닉네임을 티끌지니라고 지었어요. 제가 영진이니까 티끌모아 지금의 영진이 됐다는 의미예요. 생각해 보니까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지금의 제가 되었던 거고요. 그때그때 작지만 의미 있는 일들을 했고, 순간순간 그 일들로 분명 행복했었다고요. 그런 선택들이 앞으로도 또 올 텐데 그런 선택을 할 때 자기 기준을 좀 잘 세워야겠다고요.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게 될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건 마을에서 활동하기 시작하기 전과 후의 저는 분명 달라졌다는 거예요.

상담심리학을 배우면서 알게 됐다고 한다. 자신은 ‘돕는 사람’의 유형이라는 것을. 누군가를 도와서 변화가 일어났을 때가 가장 좋았고 보람있었다는 사람. 그가 소개한 ‘민주주의의 정원’이라는 책에는 ‘생존과 번영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주변 사람이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는 구절이 나온다. 어쩌면 영진씨는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돕는 사람이야말로 결국 스스로를 돕는다는 것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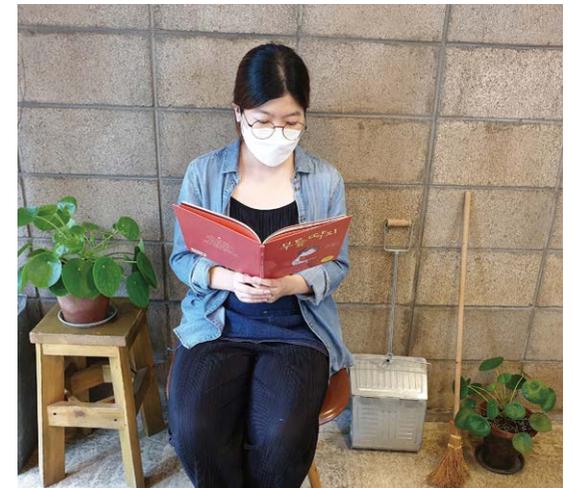
함께 행복해지는 걸
배운다면 해볼만하지 않나요
오래가는,
행복의 유효기간을 늘리다

대학로 하늘땅소극장을 운영하며 크고작은 공연을 올렸다. 그러던 어느날 관객 참여형 연극을 보러갔다가 2층 관객에게는 참여 기회가 오지 않아 울음을 터뜨리는 아이를 보았다. 그날, 공연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다. 크고 멋진 공연은 다들 하고 싶어할테니, 나는 작고 아름다운 공연을 하자, 마음을 먹었던 최애지 씨. 모두가 서로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을만큼 맞닿은 공간에서 각자가 주인공이 되는 그런 공연을 하는 공간. 할머니가 시집올 때 가져온 낡은 베개에서, 아이들이 주워온 나무가지에서, 현장의 흙이 묻어있는 신발에서 건져올려지는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마토펠스타 535-79 2번째
님 . 챌린지



대학로 소극장에서 강북 마을로

드림랜드 아세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거기에서 극장을 운영했어요. 그래서 가까운 강북구에 집을 얻어 살았죠. 그러다 극장은 대학로로 옮겼는데 여기가 공기도 좋고 해서 집은 그대로 뒀어요. 아침 한 9시쯤 나와서 11시면 들어오는, 잠만 자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 때는 동네에 대한 생각이 없었죠. 그런데 대학로 극장을 정리하면서 아예 여기에 터를 잡았어요. 대학로에서 공연할 때부터 관객이랑 같이 소통하면서 만드는 공연을 했어요. 같이 소통하고 같이 만들어가는 게 좋더라고요. 관객이 참여하면 매번 공연이 달라지니까 만드는 사람도 성장하거든요.

이 곳에 공간을 만들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들 사느라고 어쩔 수 없이 놓아버린 오래된 꿈 같은 게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전문적인 예술가가 될 필요는 없으니까 취미로 해도 충분히 가치있고 행복한, 그런 걸 해볼 수 있는 공간이면 좋겠다. 영화보는 모임을 했는데 영화만 보지 말고 끝나면 영화 속 이야기를 끌고 와서 대화를 나누는 모임을 했죠. <그린북>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안에 담긴 인종 차별 이야기를 나누고 <까미노 식당>이라는 영화를 봤을 때는 근처 지나가던 60 넘은 남자가 궁금해서 들르셨더라고요. 같이 영화를 보고 참여자들 이랑 엄마가 만들어준 음식을 적어봤는데, 마침 그분이 엄마가 해주신 음식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만든 건지는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의 레시피를 모아보자 했어요. 그런 식이었어요. 여기에 작지만 무대가 있으니까 올라가서 발표도 하고. 작으니까 만만하잖아요. 하지만 어쨌든 무대니까 또 자리에 그냥 앉아서 얘기할 때랑은 다르고. 각자가 가진 이야기로 무대에 서보게 하는 거죠.

마음을 열고 배우다

처음엔 적응하느라 힘들었죠. 대학로는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으니까 여기서는 그런 속도가 아니잖아요. 왜 이렇지, 왜 아직 이렇게. 처음엔 좀 답답해 했어요(웃음). 그리고 무언가 뒤흔친다는 느낌. 나 아직 뭔가 더 하고 싶은데 이제 쉬어야 하는 건가, 아무튼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그 때 했던 게 <잠시 힘들 때는 쉬어도 돼> 였어요. 사람들에게 각자 쉬고 싶은 자기 모습을 그리라고 하고 의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앉혀놓고 전시를 했죠. 그리고 그 전에는 <Who am I?>라고 나를 위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우리가 정말 자기 이름을 부를 일이 없잖아요. 광목천에 자기 인생을 그려보고 글도 써보고 그랬어요. 사실 서로 오래 안 사이가 아니라서 조심스러웠는데 아주 깊은 얘기들을 꺼내놓으시더라고요. 죽고 싶었던 순간, 너무 힘들었던 순간, 그런 순간들을 낫선 사람 앞에 꺼낸다는 건 정말 위로받고 싶다는 거잖아요. 함께 울고 위로하고 그랬어요. 참여자 중에 결혼생활을 힘들게 하셨나봐요. 여기 와서 인생 이야기를 나누면서 본인이 어린 시절에 얼마나 사랑받았는지가 떠올랐대요. 그래서 그 날 밤 잠을 못 잤다고 하더라고요. 행복했던 기억이 떠올라서요. 저도 스스로에게 그래, 쉬어도 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엄마 레시피를 모았다고 했잖아요. <엄마의 맛을 그리다>라는 작업이었는데 각자 엄마에게 레시피를 물어보기도 하고 이미 엄마가 떠나신 분은 기억을 되살려서 요리를 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전 사실 그냥 이렇게 해봅시다, 한 건데 한 분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해오신 거예요. 그 전날 다 밑작업을 해서 바리바리 재료랑 장비를 싸오셨더라고요. 나이가 있으셔서 엄마의 레시피를 직접 들을 수는 없지만 본인이 꼼꼼이 생각한 레시피를 직접 적어보고 전날 미리 한번 만들어

보고 오셨어요.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다른 감동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저는 그냥 놀이 삼아서 즉흥적으로 이렇게 해볼까, 했는데 다른 분들이 참여하면서 조금 더 예술이 돼간다고 할까요. 더 성장해 가고 발전돼 나가고 이어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랑 집 만드는 프로그램을 했어요. 이 동네가 저층 주택가라서 자기 집을 둘러보고 대문 앞에다 그림도 그려주고 이름도 붙여주라고. 그리고는 숲에서 나뭇잎이랑 가지, 돌, 이런 걸 주어와서 자기가 살고 싶은 집을 만들어보자 했어요. 종이랑 점토도 사용하고요. 그런데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멋진 집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이동하는 집을 만들겠다고 자동차 위에 집을 올리고 어떤 아이는 수영장 위에 집을 두기도 했어요. 자연스럽게 그 집들이 있는 마을이 생기고, 버스 정류장을 어디에 둘지 토론도 하고. 제가 아이들에게 많이 배웠어요. 혼자 생각해서 이렇게 하자, 끌고가지 않고 열어두니까 무궁무진한 아이디어가 나오더라고요. 같이 작업할 때마다 제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 결과들이 쌓여가는데 그게 즐겁고 재미있었어요. 이렇게 계속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오래 가는 행복을 찾아가는 법

이 동네에는 나이든 분이 많이 사세요. 처음 여기에 공간을 만든다고 했을 때는 다들 탐탁치 않아 하셨어요. 여긴 산새가 날아다녀야 하는 곳인데 왜 쓸데없는 걸 만드느냐, 동네가 시끄러워지는 거 싫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인사를 드렸어요. 지나가실 때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카페에서 빵이 나오면 빵도 나눠드리고. 지금은 다들 좋아해주시고 김장도 담아서 주고 그러세요. 나이든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 본인을 드러낼 수 있는 공간, 이렇게 부족하잖아

요. 카페같은 데 가면 괜히 눈치 보이고 빨리 나오게 된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골목에 전시해요. 담벼락에 전시해두면 다들 지나가며 보시고 한두마디씩 해주시고 그럴싸한 대단한 전시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좋아하고 자꾸 봐주면 그게 예술이죠.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예술이 누군가의 전유물이 되지 않았음 좋겠어요. 69세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분이 계세요. 한옥을 주로 그리는데 그림을 그린 후로 세상이 달라보인다 그러시더라고요. 글을 잘 쓰시는 할머니는 제가 막 부추겨서 요즘 시쓰는 걸 배우세요. 엄마의 레시피에 가장 정성스레 참여해주셨던 분도 70대신데 자기 집 빈 공간을 열어서 요리교실을 운영하세요. 일회성이 아니라 진짜 오래 가는 행복을 찾게 되는, 우리가 이 곳에서 하는 작업이 그분들에게 그런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신기하고 좋아요.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냥 50년 된 손가락 하나도 액자를 만들어서 넣고 여기서 제목을 그럴듯하게 지어놓으면 가치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첫 마토편제(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하는 행사)도 신발을 주제로 했어요. 저는 원래 낡은 걸 잘 버렸거든요. 어느 날 신발이 낡아서 버리려는데 갑자기 이 신발이랑 참 여러 곳을 갔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버리기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발장에 있는 신발을 죄다 꺼내봤더니 다 이야기가 있잖아요. 신발을 이렇게 보내지 말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와 함께 전시해보자 했어요. 주변에 신발을 달라고 하면서 사연을 받았죠. 은퇴한 교수님이 강의할 때 신었던 비싼 신발을 갖다주기도 하고 어떤 분은 아버지 장례식장에 신고 갔던 신발, 처음으로 외국 여행을 가기 위해서 샀던 신발. 그리고 여기 하수도 공사하시러 오신 분한테도 달라고 해서 흙으로 뒤범벅된 걸 받았어요. 첫날 전시를 했는데 비가 오더라고요. 신발에 빗방울이 툭툭

떨어지는데 다들 너무 좋았다고 하셨어요.

숨쉬며 살아있다고 느끼는 즐거움

저는 약간 일 중독인 거 같아요. 번아웃이 오는 순간도 분명 있지만 뭔가 새로운 걸 하면 그냥 에너지가 만들어져요. 어렸을 때는 남들과 경쟁하느라 배가 아프기도 했지만 지금은 달라졌어요. 프로로 일 할 때는 ‘결과’가 중요하지만, 여기는 다같이 즐거우려고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보다 완성도보다 그걸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내가 생각했던 결과와는 좀 다르지만 오히려 더 멋지게 나오기도 하고 무엇보다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너무 행복하고. 숨쉬며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게 해줘요. 마을에서 같이 놀자는 사람이 있었고 그렇게 모여서 이것도 해보자, 저것도 해보자. 그러다가 지원이 필요하면 받아서 좀 더 놀아보고 다시 십시일반해서 또 하고 싶은 것 하고. 물론 몸은 좀 힘들죠. 그럴 때는 몸이 원하는 걸 먼저 하려고 해요.

예술에 대한 벽을 없애고 싶었어요. 우리 사회는 너무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자격 요건이나 어떤 수준이 있어야 한다든가. 얼마나 잘했어?가 아니라 얼마나 재밌었어? 얼마나 즐거웠어?를 생각하고 싶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즐겁게.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아이들도 어느 순간에 도움받아야 할 시점이 있잖아요. 그때 깊게 관여하지 말고 살짝만 개입하면 훨씬 높게 뛰어오르거든요. 그런 도움. 예산의 지원이 있어서 더 풍요롭게 할 수 있으면 확실히 좋겠죠. 모든 게 재료가 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맨날 산에서 돌이랑 나뭇가지 주워서 할 수는 없잖아요.(웃음) 때로는 근사한 복장이나 꼭 필요한 소품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제작비. 그리고 특

히 주민들과 함께 이런 작업을 계속 할 수 있는 예술가에 대한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개인 작품활동에 대한 지원은 있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주민들과 함께 하는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건 부족하거든요. 선진국이라는 게 경제적 기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문화를 향유하느냐, 얼마나 행복한가. 이런 걸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일상에서의 예술 활동이 꾸준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해요. 함께 잘 살아야 행복하다는 걸 아무리 말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술 활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공유된다면, 그래서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올라간다면 지원할만 하지 않을까요. 또 공간을 새로운 공간을 자꾸 만들기보다는 이미 있는 공간들, 사람들이 내어놓은 거실, 마당, 옥상, 그리고 공공의 유휴공간들 이런 곳을 잘 지원해줬음 싶어요. 각자의 개성이 드러나는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해요.

다름을 인정하면 다 같이 즐거워져요

마을에서 활동했던 초기에 너무 바빠서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사과하면 되는 일을 저도 여러 가지로 힘들었던 시기라 뽀족하게 굴었죠. 그 이후로 돌아보기를 하게 됐어요. 누가 오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계기가 됐던 거 같아요. 공간을 오픈하면 내가 생각하는 사람만 오지 않잖아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다 오죠. 누가 높고 낮고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다르다는 거, 그걸 깨달으면 그 다름이 재밌어져요. 아, 이 사람은 이런 부분이 나랑 다르네? 저 사람은 저런 부분이 다르네. 여기 와서 계속 자기 말만 하는 분이 있었어요. 처음엔 왜 저러지 싶었는데 생각해보니 그분은 얘기할 사람이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 말에 추임새를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얘기가 좀 더 즐거워졌어요. 듣는 사람들도 그냥 듣지 않고 추임새를 넣으니까 재밌

고, 얘기하는 사람은 남들이 잘 들어주니까 더 신나서 잘 얘기하고. 그런데 어느날 보니까 그 분이 다른 사람 얘길 듣고 있는 거예요. 남이 자기 얘길 잘 들어주니까 본인도 남의 얘기 듣는 법을 배우신 거죠. 너무 신기하죠? 사람을 오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온 사람이 자기가 있어도 되는 곳이라고 느끼는 게 더 중요한 거 같아요. 다름을 인정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같이 즐거워지더라고요. 마을에 와서 제가 많이 착해진 거 같아요.

활동의 자리를 만드는 사람들 시민참여활동 기록 모음집

발행일 2023년 12월 15일(seoulpa 2023-B-005)
발행처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주소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1동 지하1층
이메일 contact@seoulpa.kr
대표전화 02-734-1109
홈페이지 www.seoulpa.kr

만든 사람들 안녕독구말
이메일 hidokko@gmail.com

↳ 이 책의 내용은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은 국제라이선스 CC BY-NC-ND(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